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馬'의 역사문화 원형과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백 은 영

2020년 2월

'제주馬'의 역사문화 원형과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지도교수 전 영 준

백 은 영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백은영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12월

**A Study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rchetype of Horses
in Jeju and Measures to Develop Cultural Content**

BAEK EUN-YOUNG

(Suover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20년 2월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rchetype of Horses in Jeju and Measures to Develop Cultural Content

Various horse-related cultures are found in Jeju and it is a well-known fact that Jeju supplied most of horses to meet the demand in the state, from the Goryeo Dynasty to the Joseon Dynasty.

Content using horses in Jeju is a cultural industry with high economic added value as a cultural product. However, most of horse-related businesses in Jeju focus on general tourism due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there i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al horse farm and horse culture in Jeju, an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ultural contents are also insuffici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was carried out, given that effective measures to transmit and maintain traditional horse farms and the horse culture in Jeju were needed.

The horse culture in Jeju is transmitted as vario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life that is represented as myths, history, amusement and rites that are the archetypes of cultural contents. There can be a wide range to utilize Jeju horses, which ar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s cultural contents.

Recently, the traditional form of horse farming and culture of Jeju horse farms are fading away due to changes in the form of village in the middle mountainous area in Jeju. The traditional horse farm in Jeju is losing its original form due to the policies of Jeju Province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island and in the indifference of Jeju-do residents.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present new content, from which we can learn the history of Jeju horses, using Jeju horses that hold enough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creation of the Jeju horse road using the Eco Healing Horse Road and a model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Jeju horses. The development of Jeju horse road content based on various living cultures in Jeju including nature, myths, history, amusement and rites is a valuable task and will be also helpful to the economic development in Jeju.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based on cultural archetypes still existing and remaining in the history can create cultural values that Jeju people living in modern times and cultural immigrants can share with each other.

The modern age is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a form of content that simply shows local cultures cannot survive in this era. Only when content can help discover various original histories and cultures that show regional cultures clearly and provide stories with significance and value,

can it serve as genuine cultural content that represents the regions. For such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Jeju horse road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 that shows the unique culture of Jeju. Considering the fact that Jeju was an important horse farm in the history, this study also suggests a method to develop mementos using *mapae* (horse plates)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as a cultural archetype with regard to the horse culture remaining in Jeju.

The Jeju horse road as cultural content, "A road in Jeju for learning and feeling the history along with horses," can become a medium that links between the history of Jeju, Jeju horses and people. And, the original history and culture of Jeju horses can be propagated and the tourism industry using the Jeju horse road can be developed. The Jeju horse road will become an important place that conveys various significance to modern people and provide an excellent opportunity that our future generations who will live in Jeju will enjoy. It is expected that shedding light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the horse culture in Jeju and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ose cultural elements will lead to the improvement of Jeju's brand image.

This study does not present specific methods to expand the horse culture into the zone of our culture and life and develop contents in various forms. It is hoped that Jeju horse content with specific plots will be researched and implemented continuously in the future. It is also hoped that the tangible and intangible properties of the fading horse culture in Jeju will be preserved well and the horse culture in Jeju will be widely known.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방법 및 구성	9
II. 제주馬의 역사문화원형	12
1. 한국의 馬문화원형	13
2. 제주馬의 신화와 역사	17
3. 제주인의 생활에 반영된 馬문화 양상	26
III. 제주馬 원형의 문화콘텐츠 개발	40
1. 제주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현황	42
2. 문화콘텐츠 수립 기반의 제주 馬路	45
3. 제주馬의 문화콘텐츠 개발 의미	55
IV. 결론	58
참고문헌	63

표 목 차

<표 1>	말의 역사문화 원형에 관한 선행연구	4
<표 2>	말의 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에 관한 선행연구	6
<표 3>	제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에 관한 선행연구	8
<표 4>	탐라순력도 중 말과 관련된 그림	30
<표 5>	제주도내 신고 승마장 현황	45
<표 6>	에코힐링마로 조성사업의 예시	47
<표 7>	제주馬 의례路 콘텐츠 구성안 예시	54

그림 목 차

[그림 1]	천마도	15
[그림 2]	기마인물형 토기	16
[그림 3]	십소장 위치	23
[그림 4]	고마로 도로 블록과 표지판	37
[그림 5]	2019년 제주 馬축제 포스터	43
[그림 6]	관광마로 예정노선도와 위치도	47
[그림 7]	상명목장 주변 힐링 마로	52
[그림 8]	에코힐링마로 입구와 안내표지판 현재 모습	53
[그림 9]	마패와 간세다리	53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말은 예로부터 인간에게 먹을 것과 탈 것을 제공함은 물론 영혼을 안내하는 모습이나 인간을 지켜주는 수호자의 이미지로 매우 밀접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함께 존재해 왔다. 주지하듯이 말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신화 속에서도 나타나며 고구려 벽화, 부장품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말은 우리 민족에게 일상적인 동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는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과 달리 말에 대한 독특하고 긴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제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야생마가 존재했고 민가에서도 말을 사육해왔다.¹⁾ 그래서 지금도 제주 곳곳에는 말과 관련된 문화상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뿐 아니라, 고려시대 탐라목장의 설치나 조선시대 국영목장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필요한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였다는 기록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주에는 관광산업을 필두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도시이다. 문화콘텐츠는 고부가가치 분야인 문화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이 가미된 역사문화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는 한국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말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승마는 제주 관광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였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받고 있다.

말을 이용한 콘텐츠는 여행 및 관광지의 문화상품으로서의 경제적 부가가 큰 문화산업이다. 특히 제주에는 2011년부터 시행된 말산업 육성법으로 인해 馬문화 양성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어 이후 2015년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되었다.²⁾

1) 제주의 옛 이름인 탐라의 고대 기록에는 선사시대부터 말을 가축으로 길렀다는 기록이 있다. 『삼성신화』에 따르면 탐라에 처음 정착했던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와 혼인했던 3명의 渡來여성들이 오곡을 가져와 씨를 뿌리고 말과 소를 길렀다고 하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선사시대 야생 牛馬가 한라산 지대에서 농경민들과 유목생활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권무일, 『현마공신 김만일과 말 이야기』, 평민사, 2012, 52쪽).

2) 말과 제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볼 때 제주도의 말 산업특구 지정은 제주 말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제주도는 차별화된 상품개발과 인프라의 확대, 승마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제주馬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심계진·박치완, 「제주승마장활성화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3, 96쪽).

하지만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전반적인 馬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일반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제주 전통 목마장과 馬문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이며, 문화콘텐츠 개발 및 시행에 대한 결과 역시 미흡하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전통 목마장과 馬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전달하고 이어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제주 馬문화는 문화콘텐츠의 원형인 신화와 역사, 유희와 의례로 나타나는 생활상에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함께 전해져 오고 있다. 제주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주에 들어오고 어떤 과정으로 목장이 형성될 수 있었는지, 그 오랜 역사 속 馬의 서식 장소 곳곳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역사문화자원으로써 제주馬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목마장은 원 간섭기 몽골의 정책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제주는 원 간섭기 침탈을 겪어 힘든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몽골의 목장 운영 정책으로 제주의 馬문화가 정착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조선시대 담을 쌓아 잣성을 만들고 말을 기르는 방식의 도입으로 제주목장은 외형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제주목마장의 규모는 축소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에는 말과 관련한 여러 전통문화가 쌓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자본의 진출로 인해 제주 중산간 마을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제주목마장의 전통적인 牧馬형태와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개발에 중점을 두는 제주도의 정책과 제주도민의 무관심속에 제주 전통목마장의 형태는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제주馬를 활용하여 제주馬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馬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콘텐츠가 개발되어 왔으나 말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존의 정체된 인간의 도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제주馬와 관련한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는 사라져가는 전통목마장에 다양한 소재를 더하여 제주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탄생시키고 에코힐링마로⁴⁾를 활용한 제주 馬路의 재창조를 제안할 것이다. 이는 곧 제주馬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의

3)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지역 목축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방향」, 『제주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주학회, 2013, 66쪽.

4) 제주도가 전국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외승 코스로 조성한 길의 명칭이다.

개발이라 생각된다.

2. 선행연구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중 지역의 대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⁵⁾을 수립하고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전략 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현재까지 문화원형을 활용한 맞춤형 개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역사적 요소를 가진 문화원형에 기반을 둔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이 문화상품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⁶⁾ 역사적 전통문화를 원형으로 하는 지역문화콘텐츠는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체가 시행되면서부터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⁷⁾ 예를 들면, 안동의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산청 동의보감촌의 한방약초 축제, 전주 객사 선비놀이 문화체험 등이 있다. 이처럼 전통문화에 관심을 둔 콘텐츠 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후 2009년 시작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⁸⁾에서는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2014년 발표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⁹⁾에서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목표를 내걸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 동북아 중심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연관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정책이 활발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馬의 역사

5) 2004년~2008년 지역발전 5개년계획 : 제주를 동북아 관광과 휴양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간·환경·지식 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경쟁력 강화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였다.

6) 이지현·허진하·정미경,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문화원형 콘텐츠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15,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9, 305쪽.

7) 강연실,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와 문화콘텐츠 방안」,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쪽.

8) 2009년~2013년 지역발전 5개년계획 : 제주를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가자유도시 기반구축, 관광·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 6차 산업화를 통한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공간발전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9) 2014년~2018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 제주의 지역발전을 위해 분야별 역점과제를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하고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제주 특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주형 제조업 진흥, 문화·복지·교육분야에서는 제주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민행복관광단지 조성을 역점과제의 예로 제시하였다.

문화원형을 활용하여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주馬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를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말의 역사문화 원형 관련 연구, 둘째 말의 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연구 셋째,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연구이다.

1) 말의 역사문화 원형 관련 연구

제주馬의 역사문화원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말의 역사문화 원형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내용
김경옥 (2001)	탐라지 기록을 토대로 제주목장을 정리	탐라지 목양조 분석을 통해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을 시기별로 정리
남도영 (2003)	제주도 목장사	제주 지역 목장의 운영과 공마 수송문제
D. Otgontsetseg (2009)	蒙·韓 구비문학에서 말[馬]의 의미와 상징	몽·한 구비문학에서 항상 긍정적인 동물인 말에 대해 몽골 사람들의 말에 관한 상징과 한국사람들의 말에 관한 상징을 대비 설명
강만익 (2009)	조선시대 제주 잣성 연구	제주 목장의 근간인 십소장의 지리적 위치와 가치 입증
좌동렬 (2010)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 정리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제주의 목축의례들의 종류와 내용을 역사민속학적인 관점에서 정리
표인주 (2014)	전남 지역 말 [馬] 모티프 당신화의 신화적인 의미	말(馬)모티프 당신화가 가지는 신성성, 충성성의 의미
표인주 (2014)	'말'의 민속적인 관념과 신앙적 의미	馬의 쓰임 확대에 따라 말의 의미는 다양해지고 말의 문화적인 의미가 끊임없이 변화된다.
김유정 (2014)	말(馬) 통한 표현 연구	말(馬)에 대한 연구, 말(馬)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말(馬)이 본인에게 주는 의미, 말(馬)의 상징을 표현 자아표현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
이흥두 (2017)	조선 초기 마목장	조선 초기 마목장의 지역별 설치 현황 기록

기존에 말의 역사문화원형을 주제로 했던 연구는 제주 목장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제주 목장과 목장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제와 신화나 문학에 등장하는 말을 소재로 연구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지역 목마장에 대한 선행 연구로 남도영은 제주 지역 목장의 운영과 공마와 수송문제를 다루며 제주도 목장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며 제주도 목장사의 기초를 만들었다.¹⁰⁾ D. Otgontsetseg는 몽·한 구비문학에서 馬는 항상 긍정적인 의

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문화의 상징으로만 말을 한정시켜 설명함에 말의 가져다 주는 의미가 한정적으로 제시되었다,¹¹⁾ 강만익은 국영목장에 있어 경관요소를 도입하여 잣성 및 제주 전지역의 10개의 국영목장의 범위를 제시하고 제주목장에 대한 역사, 지리적 가치를 입증하였다. 목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잣성 보호, 테우리들의 생활상 조사, 테우리 학교 설치 제안, 축산관련 전통지식 기술조사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목축문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현대에 적용하여 구체적 콘텐츠로 제시한 사례는 미약하다.¹²⁾

한편, 생활문화원형과 연관 지어 풀어낸 연구에서 좌동열은 제주와 말과의 관련성이 긴밀함을 강조하며 말과 관련된 문화적 측면인 제주 목축의례의 종류와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들이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¹³⁾ 그러나 목축의례의 대부분을 현장조사에 치중하여 정리한 부분이 많다. 표인주는 다양한 민속현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말의 상징을 신적인 존재·영험적인 존재·신승물 등으로 정리하면서 이러한 말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¹⁴⁾ 특히 말의 신화적인 의미의 정리는 그 의미가 크다. 김유정은 말을 연구자와 동일시하여 자신의 내면을 예술작품에 드러내고자 하여 말이 가지는 상징성만을 강조하고 있다.¹⁵⁾ 이들은 공통적으로 신화나 문화에 등장하는 말라는 소재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이 가지는 다양한 상징성을 정리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홍두는 조선왕조 마목장의 근간을 이루는 경기지역과 하삼도 마목장에 중점을 두어 지역별 현황과 운영형태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선왕조의 군사력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¹⁶⁾

2) 말의 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연구

제주말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구체적인 선행 예로 현재 갑마장이 있었던 가시리 마을을 들 수 있다. 제주의 600년 목축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말박물관이다. (전)농림부가 지원하는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1리 1조랑말박

10)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박물관, 2003.

11) D.Otgontsetseg, 「蒙·韓 구비문학에서 말(馬)이 지니는 의미와 상징」, 『Journal of Korea Culture』 1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9, 71-97쪽.

12)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牆垣)연구」, 『탐라문화』 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13) 좌동열,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쪽.

14) 표인주, 「말의 민속적인 관념과 신앙적 의미」, 『한국학 연구』 5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15) 김유정, 「말(馬)을 통한 자아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6) 이홍두, 「조선초기 마목장 설치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재단, 2017, 256쪽.

박물관은 마을회의 노력과 수고로 승마장을 비롯하여 캠핑장, 체험장 등을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마을에서 설립한 국내 최초의 전문 박물관이자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삼은 문화공간으로서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¹⁷⁾ 하지만 현재 다른 승마시설이나 테마파크와 지역적으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규모가 크지 않아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주 말이 인간의 삶 속에서 내면적으로 어떤 의미로 존재하였는지 문화원형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말의 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내용으로 한 여러 논문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말의 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내용
강만익 (2001)	조선시대 제주지역 목축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 방향	조선시대 제주도 목축문화 자원들을 정리하고 이를 문화콘텐츠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시론적 접근
강만익 (2013)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한라산을 기반으로 등장한 목축경관들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해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
김창일 (2014)	6차 산업으로서의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융합에 근거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모델 방향 고찰	농어촌 공간의 유무형 자원의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승마시설의 제시 말 콘텐츠 융합지원센터의 건립 로드맵 제시
오창운, 조윤설 (2015)	제주 목축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연구-조랑말박물관 문화관광상품개발을 중심으로	제주 목축문화를 범위로 설정하고 조랑말 박물관의 활성화와 말(馬)산업,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장혜원· 오상훈· 최병길 (2016)	가시리 마을의 목축문화 기반 농촌관광 창출에 관한연구고찰	농촌관광 창출과정이 주는 학문적 사회적 시사점
최철영 (2017)	馬산업 확충을 위한 방안 제시	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제주도 승마산업 활성화 방안

강만익(2013)의 연구에서는 제주 목축문화를 말문화와 소문화, 반농반목 목축문화

17) 김창일, 「6차산업으로서의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융합에 근거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모델방향 고찰」,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35쪽.

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각 마을별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도 정리하고 설명하며 이들의 역사적 보존과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김창일(2014)은 (전)농림부가 지원하는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里立 조랑말박물관에 대해 마을회의 노력과 수고로 승마장을 비롯하여 캠핑장, 체험장 등을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됨을 지적하고 있다. 마을에서 설립한 국내 최초의 전문 박물관이자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삼은 문화공간으로서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¹⁸⁾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공간을 제시함에 있어 산업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경향이 보인다.

제주 牧馬문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는 제주의 역사 속 牧馬문화와 그 전통적 모습에 대한 활용방안에 관한 문화상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제주 산업 활성화에 그 목적이 더 크다.¹⁹⁾ 아울러 말(馬)을 통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개발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기반시설이 확충된 안전한 말산업을 위해 인력양성 및 승마조련시설 지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승마, 체험승마, 유소년 승마단을 활성화한다는 제주도의 지방정책 방향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²⁰⁾는 주장이다.

3)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연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자원은 무한한 가치창조 작업의 잠재적 자산으로 인식되어 역사문화, 지역문화 등을 콘텐츠화하여 지방자치제의 핵심과제로 주목받고 있다.²¹⁾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문화는 다른 지역과는 확실히 다른 특별함을 가진 문화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주만이 가지는 고유성을 지키고 이어져 온 문화로서 제주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다. 이는 곧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재구성된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원형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 김창일, 앞의 논문, 2014, 35쪽.

19) 오창윤·조윤설, 「제주 목축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1,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5; 장혜원·오상훈·최병길, 「제주 가시리마을의 목축문화 기반 농촌관광 창출에 관한 연구-융합관광의 관점에서」, 『관광학연구』 41, 한국관광학회, 2017.

20) 최철영, 「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제주도 레저승마 활성화 방안」,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 한국융합학회, 2017, 356쪽.

21) 강연실, 앞의 논문, 2008, 1쪽.

다음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이다.

<표 3> 제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내용
강연실 (2008)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와 문화콘텐츠화 방안 제시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발굴과 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제주문화의 세계화 작업 제시
이지현·허진 아정미경 (2009)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태관광활성화 방안을 위한 문화원형 콘텐츠 연구	제주 문화원형에 대한 고찰과 활용방안의 제시
김동전 (2010)	21세기, 제주역사문화의 현재적 의미와 활용방안 제시	제주역사문화자원의 원형찾기, 현대적 재해 석의 필요성 강조
허남춘 (2013)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연구	제주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의식의 정체성 강조 제주문화에 대한 탐구가 제주 문화 역량의 활성화 도구임을 주장
강문중 (2016)	제주신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가능성	신화는 제주도를 향유하는 중심역할임을 강 조하며 제주의 무속 혹은 신화를 보존 계승 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제안
김지수 (2017)	제주문화콘텐츠의 브랜드 개성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 문화콘텐츠 브랜드 개성을 보존, 개 발, 활성화하여 제주의 관광 경쟁력 강화
전영준 (2018)	제주의 역사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의 창출 방법 정리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기록을 근거로 하는 문화의 재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치 강조. 제주의 역사문화원형은 창의적인 제주문화 콘텐츠이며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 정의될 여지가 많음을 강조

최근에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연구에서는 제주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역사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의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의 핵심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임을 강조하며 제주인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소재로 문화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하는 까닭을 설명한다.²²⁾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이 제주인과 문화이주민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²³⁾ 그리고 이를 확장하여 제주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배려와 포용이 나타내는 문화적 개방성을 제주

22) 김동전, 「문화의 시대 21세기, 제주역사문화의 현재적 의미와 활용」, 『한국소성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소성가공학회, 2010, 22쪽.

23)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방향」, 『탐라문화』 4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185쪽.

만이 가지는 특색으로 정의하며 제주 천 년을 품어온 역사문화원형은 창의적 탐라 문화브랜드로 정의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²⁴⁾

이 외에도 제주문화상징물, 전통문화자원, 제주신화 활용, 향몽유적 역사성, 신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목축문화와 농촌관광 등의 논문에서 제주의 다양한 역사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가 다수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참고한 선행연구 내용으로 2014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발행한 『한국의 馬 시공을 달리다』는 말의 상징성을 정의하고 역사 속에서 어떤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풍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말의 역사 문화, 관념과 의미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골고루 접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주馬의 역사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문헌 및 기초자료와 선행연구 된 연구논문, 학술지 등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각각의 역사문화와 역사원형에 기초한 학술적 고증과 분석을 통해 그것들에 담긴 문화콘텐츠의 의미와 가치를 밝히고 제주馬의 역사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馬의 역사문화원형을 밝혀 줄 많은 자료 중 제주馬의 '신화와 역사' 그리고 '유희와 의례'를 포함한 생활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제주馬의 신화와 역사에 연구범위를 집중시켰다. 이를 위하여 말의 역사 문화 원형, 말의 원형적 활용, 역사문화 자원을 기초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馬의 역사문화원형은 제주마의 역사, 의미, 상징, 형성, 신성함 등과 관련된 문화적 측면에 의미를 두고 일련의 연구를 파악하였다.²⁵⁾ 말의 원형적 활용

24) 전영준, 「제주(탐라)의 역사문화원형과 브랜드활용」, 『제2018년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탐라 연계 공동학술대회』, 2018.

25) 김경옥, 「濟州牧場의 設置와 運營 - 耽羅誌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 역사문화학회, 2001;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박물관, 2003; D. OTGONTSETSEG, 「蒙·韓 구비문학에서 말(馬)이 지니는 의미와 상징」, 『Journal of Korea Culture』 1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9;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갯성(牆垣)연구」, 『탐라문화』 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좌동열,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표인주, 「'말'의 민속적인 관념과 신앙적 의미」, 『한국학연구』 5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김유정, 「말(馬)을 통한 자아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이흥두, 「조선초기 마목장 설치 연구」, 『東北亞歷史論叢』 55, 동북아역사재단, 2017.

부분에서는 말산업과 관련하여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목축문화와 공간 및 자원의 활용 분야 및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문화콘텐츠 활용 부분에 의미를 두어 검토하였다.²⁶⁾ 또, 역사문화 자원 부분에서는 문화의 재구성, 현대적 재해석, 관광자원, 관광산업 등의 부분에 검토를 집중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²⁷⁾

최근 들어 제주馬의 역사문화 원형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지만, 역사문화와 원형을 개발방안으로 연결시킨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나마 제주馬의 목축문화와 실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목축 자원에 대한 연구로 강만익이 주도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그 핵심적 특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이외의 문화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초보단계라 하겠다. 또한 제주馬에 대한 가치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해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드물고 역시 문화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미비한 실정이다.

역사문화 원형은 중요한 미학적 요소이다. 또한 제주馬는 역사와 문화와 원형을 모두 상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제주 馬문화를 역사문화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문화상징물로서의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화와 역사, 유희와 의례를 포함한 제주인들의 생활에 반영된 馬문화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제주 馬문화와 관련된 역사문화 원형을 발굴하고 전통목마장과 제주 '馬路'라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사라져가는 제주의 전통목마장과 馬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장에서는 제주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콘텐

-
- 26) 강만익, 「朝鮮時代 濟州道 官設牧場의 景觀研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강만익,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 23, 한국사진지리학회, 2013(a);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지역 목축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방향」, 『제주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주학회, 2013(b); 김창일, 「6차산업으로서의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융합에 근거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모델방향 고찰」,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오창윤·조윤설, 「제주 목축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1,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5; 장혜원·오상훈·최병길, 「제주 가시리마을의 목축문화 기반 농촌관광 창출에 관한 연구-융합관광의 관점에서」, 『관광학연구』 41, 한국관광학회, 2017; 최철영, 「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제주도 레저승마 활성화 방안」,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 한국융합학회, 2017.
- 27) 강연실,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와 문화콘텐츠 방안 - 돌문화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지현·허진하·정미경,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문화원형 콘텐츠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9; 김동전, 「문화의 시대 21세기, 제주역사문화의 현재적 의미와 활용」, 『한국소성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소성가공학회, 2010; 허남준,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연구」, 『탐라문화』 4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강문중, 「제주신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가능성」, 『영주어문』 32, 영주어문학회, 2016; 전영준, 「제주탐라의 역사문화원형과 브랜드활용」, 『제2018년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탐라 연계공동학술대회』, 2018.

츠 개발의 필요성에 중심을 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문헌과 기초자료 및 논문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정책과 그 내용을 연결 지어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II장에서는 제주 馬문화의 역사와 상징성을 정리하기 위하여 원형의 개념을 분류하여 확인할 것이며, 馬문화의 원형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여 분류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사료와 유물 속에서 여러 형태로 등장하는 한국의 馬문화원형을 정리하고 제주마의 신화와 역사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제주인들의 생활속에 나타나는 말과 관련된 여러 문화를 정리하여 제주 역사 속에 남아있는 제주馬의 상징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제주마의 다양한 원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주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구체적 방안제시를 위하여 우선 기존에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제주 힐링 마로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재검토하여 제주 馬路라는 새로운 콘텐츠의 재구성을 제안할 것이다. 관광콘텐츠, 체험콘텐츠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사 속에서 문화원형을 찾고 이를 콘텐츠화 할 때 후손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문화콘텐츠로의 개발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결론에서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馬의 역사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의 제시를 통해, 제주의 지역문화를 다른 지역 문화와 비교 연구하여 차이점을 찾고 그 가치를 재조명 또는 보존하는 데 중심을 두어 미래 지향적 문화산업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주의 역사에서 제주馬의 원형을 잘 찾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공간을 만들어 제주馬를 상징하는 장소를 구성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공간의 구성은 제주목장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제주馬의 역사문화원형

본 연구에서는 제주馬의 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말과 관련된 문화원형을 범주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馬문화원형을 여러 기록과 유물 등을 통해 찾아내고 그 속에서 말이 가지는 상징성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馬와 관련한 신화와 역사, 유희와 의례의 내용을 정리하고 제주인의 생활 속에 제주馬문화가 어떻게 반영되어 왔으며 현대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제주馬문화를 제대로 풀어 나타낼 수 있는 문화콘텐츠 상품으로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馬문화의 근간은 물론, 제주의 상징성 있는 제주馬의 역사문화 정립에 기여하고자한다.

문화는 동일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적, 정신적 구성물을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⁸⁾ 국어사전에 의한 문화원형에 대한 의미를 “문화’와 ‘원형’의 합성어로, 고유의 민족적 특성을 담고 있는 공감대의 산물이다. 정신적 원형뿐만 아니라 물질적 원형까지 포함되며,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통해 형성되는 민족 구성원 간의 공감대와 주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원형은 접근방향에 따라 규정을 달리하기도 한다. 첫째, 원형(元型, originality)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 즉 역사적 기원이 되는 ‘최초형’으로 정의된다. 이는 원형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중점을 두게 된다. 둘째 원형(元型, Archetype)은 다른 부분에 변화를 주는 ‘영향형’, 셋째 원형(元型, pattern)은 정해진 모양을 구성하는 ‘규범형’으로 나눌 수 있다.²⁹⁾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馬원형을 중심으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집중하여 바라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馬문화가 가지는 고유한 문화적 원형성을 찾아내고 정신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제주馬문화 관련 콘텐츠 산업 연구에 활용하여 그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역

28) 황동열, 윤미화, 「문화원형기반 창작아카이브의 특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13, 한국무용기록학회, 2007, 152쪽.

29) 이운선, 「민속문화와 문화원형-무형문화재와 <문화원형사업>의 문화원형담론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 역사문화학회, 2008, 12쪽.

사문화원형의 개념은 지역문화콘텐츠를 산업화하기 위하여 역사와 신화적인 스토리를 적용시키는데 유용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제주 馬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기반으로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적 상상력을 입히는 작업을 통하여 제주만이 상징할 수 있는 제주 馬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즉 제주가 가지는 馬문화의 원형에 상상력이 더해질 때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제주 馬문화콘텐츠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원형의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말의 역사문화원형을 찾아내고 말과 인간이 가졌을 관계에 대해 신화적인 부분과 역사적인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하는 전통목마장과 제주馬路라는 콘텐츠에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드러나게 하여 제주 목마장의 역사 및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말의 원형을 강조할 것이다.

1. 한국의 馬문화원형

문화 원형이란 한 지역의 구성원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특성, 즉 원형이 문화로 발현되어 어떤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내면에 문화 원형으로 존재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국의 신화와 역사 속에 나타나는 말의 상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말과 인간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몇 가지 형태로 등장하는 말의 상징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신의 대변인 또는 계시자로서 등장하는 모습이다. 사료를 통해 말을 통해 천신의 계시를 보여주는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혁거세 신화 속에서의 말은 영험적인 존재로서 신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혁거세 신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높은 곳에 올라 남녘을 바라보았다. 양산 및 蘿井곶에 이상한 기운이 마치 번개 빛처럼 땅에 드리우고 흰 말 한 마리가 꿇어 앉아 절을 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다. 그곳을 찾아 살펴보니 자주 빛 알 한 개가 있는데, 말은 사람을 보자 길게 울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곧 그 알을 쪼개 보니 사내아가가 나왔는데, 얼굴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놀라고 이상히 여겨 동천에 가서 목욕시켰더니 몸에 광채가 나고 날새와 짐승들이 따라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일월이 청명하였다.³⁰⁾

30) 『三國遺事』 卷1, 紀異2, 新羅始祖 赫居世王 “時乘高南望, 楊山下蘿井傍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撿之有一紫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形儀端美. 驚異之俗於東泉. 生光彩鳥獸率舞天地振動日月清明. 因名赫居世王, 號曰居瑟邯, 時人爭賀曰 “今天子已降, 宜覓有德女君配之.”

위 인용에서는 박혁거세가 신의 대변인 또는 계시자로서 등장하는 모습이다. 말이 꿩어 앉아 절을 했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은 말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절을 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오자 말이 울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는 신의 대변인임을 말하는 것이다.³¹⁾ 사료에서 말을 통해 천신의 계시를 보여주는 예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말을 인간처럼 표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람들을 보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늘의 계시를 전달하고자 하는 신화적 유용성을 제시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신의 계시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료로 금와왕 탄생 이야기 또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여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곤연에 이르니 큰 돌을 보고 마주 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색 개구리 모양이었다. 왕이 기뻐하면서 “이는 하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다.”말하고 거두어 길렀다. 이름을 금蛙라고 하였다. 그가 성장함에 그를 태자로 삼았다.³²⁾

이 신화에서 말은 기다리고 있던 태자의 탄생을 알려주는 예시자로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부루가 아들이 없어 걱정하는 마음으로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그 예견이 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말은 천상계와 인간계를 연결하며 하늘의 계시를 전달하는 중요한 동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인간과 동반자로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다. 다양한 전설 속에서 말이 망자를 실은 수레를 끄는데 이용되는데 이는 말이 망자의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아 인간의 죽음에 동반자로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남 장흥에서 내려오는 다음의 신화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날 장흥골 원님이 장평을 가기 위해 말을 타고 거드름스럽게 넘어 가려 했다. 이를 본 만년 주민들이 한사코 말렸다. [...] 원님은 막무가내로 말을 타고 재를 넘기 시작했다. [...] 겨우 재 꼭 대기에 오르기 직전 힘이 빠진 말이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말과 함께 굴러 떨어진 원

31) 표인주, 「'말'의 민속적인 관념과 신앙적 의미」, 『한국학연구』 5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91쪽.

32)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1, 시조 동명성왕 즉위년 “扶餘王解夫妻, 老無子, 祭山川求嗣. 其所御馬至鯤淵, 見大石, 相對流淚. 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 金色蛙形 蛙一作蝸.. 王喜曰, “此乃天賚我令胤乎.” 乃収而養之, 名曰金蛙. 及其長, 立爲太子.”

넘은 며칠을 앓다가 죽고 말았다. 그 후 만년 사람들은 재의 꼭대기 부근에 원님과 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당산을 만들어 주었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³³⁾

위 인용문에서 말을 망자와 동일시하여 함께 매장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말의 영혼을 달래주었다는 내용에서 단순한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 소중한 존재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인간과 영혼 공유의 모습을 보여 주는 예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사료에 의하면 왕이 타던 내구마가 무릎을 꿇고 슬프게 울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겨울 10월에 왕이 항상 타던 內廐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슬프게 울었다.³⁴⁾

당시 신라의 나라 상황으로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이는 나물왕이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의 왕의 심리상태를 왕이 타고 있는 말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감정을 대입하여 표현함으로써 말과 인간의 영혼의 동반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1] 천마도

이러한 내용은 벽화 등에서도 종종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 무덤 속에서 말의 형상을 한 여러 부장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말을 통해 영혼을 실어 하늘로 전달하고자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즉 말은 사람만 태우고 이동했던 동물이 아니라 영혼을 태우고 또는 신적인 존재를 태우고 다니는 동물로 여

겨졌던 존재였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림이 신라시대 천마총에서 출토되었던 말다래에 그려진 천마도이다.

또한 삼국시대 다양하게 제작되었던 상형 토기의 모습에서도 말을 소재로 하여 만든 것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상형 토기는 일상생활보다 제사 등 의례 과정에서 술이나 물을 담아 사용하거나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담아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록으로 유추해 볼 때 옛 부터 말은 승천

33) 표인주, 「민속현상에 나타난 '말(馬)'의 상징성」, 『비교민속학』 9, 비교민속학회, 1992, 208쪽.

34)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나물이사금 45년 冬十月, 王所嘗御內廐馬, 跪膝流淚校勘 哀鳴.

하는 영혼을 도와주는 역할 즉 피장자의 영혼을 싣고 승천하는 신앙적 상징물, 신성한 동물로 인식되어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작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³⁵⁾



[그림 2] 기마인물형 토기³⁶⁾

세 번째는 인류의 생활 속에서 친근함을 나타내는 말의 상징성이다. 말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존재를 나타낸다. 말은 신화와 전설을 중심으로 설화에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생 언어생활이나 우리의 고유한 세시풍속 또는 놀이의 형태로도 그 모습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말에 대한 관념이 밀접하고 친근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의 사료는 말을 이용한 놀이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킨 일에 대한 것이다.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이 신라 국경의 인근에 끼어 있어 매우 걱정거리였다. 居道가 변경의 지방관이 되어 몰래 그곳을 병탄할 생각을 품었다. 매년 한 번씩 많은 말들을 張吐의 들판에 모아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리면서 재미있게 놀게 하였다. 당시사람들은 이 놀이를 馬技라 불렀다. 두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익숙히 보아 왔으므로, 신라의 평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때 거도는 전쟁을 일으켜 갑작스레 두 곳을 쳐서 멸망시켰다.³⁷⁾

삼국시대 이후에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말의 유희를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갈래로 전승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조선시대의 마상무예를 들 수 있다. 마상무예는 기병이 활이나 칼 혹은 다양한 종류의 병무기를 사용하여 말과 함께 했던

35) 『한국의 馬 시공을 달리다』, 국립제주박물관, 2014, 40쪽

36) <http://www.museum.go.kr/>

37)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道 “時于尸山國·居柒山國, 介居鄰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并吞之志. 每年一度, 集羣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馳走, 以爲戲樂. 時人稱爲馬叔. 校勘兩國人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 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무예훈련을 말한다. 이런 마상무예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쳐 조선 후기까지 그 모습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상무예의 변화과정을 통해 당대의 군제나 전술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무예인 毛毬또한 조선 전기를 대표할 만한 마상무예라고 할 수 있다. 모구는 그냥 제자리에 서서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달리며 앞의 말이 끄는 털 공에 화살을 쏘는 것으로 일종의 유희적 성격이 강한 마상무예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종대 북방의 야인과의 잦은 충돌이 있었던 시기적 상황과 맞물려 거의 매일 군사들로 하여금 모구를 훈련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예를 익히는데 모구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모구의 적극적 활용을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병조에 전지하기를 “무예를 익히는 데에는 毛毬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도 이를 중하게 여겼으니 세자로 하여금 병조와 鎭撫를 거느리게 하되 매일 군사 3백 인을 영솔하여 모구를 모화관에서 쏘게 함이 옳겠다.”고 하였다.³⁹⁾

이처럼 말은 영험적인 존재로의 신의 대변인, 영혼의 동반자, 군사적 도구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하는 동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말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제주馬의 신화와 역사

1) 제주馬 관련 신화

1절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말의 다양한 상징성은 제주의 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말(馬) 관련 신화 중 삼성신화와 천마를 들어보고자 한다.

제주목 남쪽에 삼성혈이 있으며 이곳에서 삼신인이 용출하여 사냥하며 고기를 주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해변에 자주색 석함이 떠 내려와 열어보니 3공주와 망아지 송아지 오곡종자가 들어있었다. 이를 가져온 사자는 서광이 서려있는 곳에 삼신인이 솟아났는데 삼신인에게 배필이 없는 지라 세 공주를 모시고 가라는 명을 받고 왔다는 말을 마치고 백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오곡을 파종하고 또 망아지와 송아지를 기르니 날로 부유하고 번성해갔다.⁴⁰⁾

38) 최형국, 「朝鮮後期 騎兵의 馬上武藝 研究」, 중앙대 박사논문, 2011, 21쪽.

39)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9월 12일 기해. “傳旨兵曹:習武莫如毛毬, 故古人以是爲重。 可令世子率兵曹鎭撫, 每日領軍士三百人, 射毛毬於慕華館.”

40) 장덕지, 『제주마 이야기』, 제주문화, 2007, 338쪽.

위 내용은 제주의 개벽신화로 제주가 처음 생겨날 당시에도 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음에서 제주가 말과 그 시작을 함께 했음이며 또한 백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전달자의 역할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광정당 말무덤 전설을 통해서도 말은 어떤 계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광정당은 예로부터 신령이 세기로 유명하다. 이 당 앞을 지날 때는 누구나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만일 그대로 지나가면 말이 발을 절어서 죽게 마련이다. 조선시대 숙종 때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부임해서 이 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당 앞에 이르자 군졸들이 이 당은 신령이 세어서 말을 탄 채로 지나갈 수가 없으니 황송하으나 하마하시어 걸어가십시오. 하고 권고했다. 이상하게도 갑자기 말이 발을 절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었다. 이 목사는 곧 이 당을 심방을 불러 곳을 신령을 보이라하니 큰 곳을 시작하였다. 곳이 한참 진행되어 가니 당에서 큰 뱀이 나와 꿈틀거리며 혀를 낼름 거렸다. 이형상 목사는 곧 군졸을 시켜 그 뱀을 베어 넘기고 죽은 말을 그 앞에 묻어주었다. 이 무덤을 말무덤이라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파헤치니 말뼈가 무수히 나왔다.⁴¹⁾

위 인용문은 제주 곳곳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말이 제주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과 관련한 신화를 살펴보면서 말과 인간생활에 나타나는 상징성을 발견하게 된다. 말은 우리의 신화 속에서 신의 대변인, 죽음으로의 동반자, 이승과 저승의 연결자, 메시지를 전하는 계시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 존재를 나타내며 상징적인 존재의 모습을 신화 속에서 드러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은 신화와 전설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에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상 언어생활이나 우리의 고유한 세시풍속에서도 그 모습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말에 대한 관념이 밀접하고 친근하여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주인과 말에 대한 이야기 중 특이한 내용으로 제주 기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기생의 이야기를 담았던 이능화의 『조선해어화사』에서는 제주 기생이 예로부터 말을 타고 달리는 재주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탐라 목장때부터 많은 말을 생산했던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기생이 이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것 또한 풍토가 이처럼 만든 것이다⁴²⁾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41)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 245쪽.

42)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316쪽.

시에 대한 기록으로 『(역주)제주고기문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성 위에서 제주 기생의 말 달리는 것 보다 / 남장하고 말 달리는 제주 아가씨 / 연(然)·조(趙)의
풍류(비분강개하는 활달한 기풍)가 교방을 차지했네 / 한 번 금 채찍 들어 푸른 물결 가리키고 /
봄풀 자라난 石城 곁을 세바퀴 도네 / 다투어 집집의 굴나무 바라보며 / 혼자 걸어가는 화류(명마
의 한가지)들 곳곳에네 / 눈썹을 드러내 북쪽으로 갔다면 / 천금으로 진작 우림랑(한나라 금위군
의 벼슬 이름)에게 시집갔을 것을⁴³⁾

땅 깊숙한 명월포 / 봄철 암녹색 등나무 우거진 성 / 관기는 말 다룰 줄 알고 / 뱃사람은 고래도
두려워 하지 않네 / 문장은 풍토기에 올라있어 / 꽃, 새, 월의 아침이라 했네 / 바다의 방위를 말
은 영장은 / 때때로 나를 찾아와 나그네 심정 위로하네⁴⁴⁾

위의 인용 시는 제주에 머물렀던 의금부도사 申光洙(1712~1775)⁴⁵⁾가 남긴 시문이다. 그는 기생들과 관련한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그 중 위 시는 제주기생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고 지은 시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제주기생에 대한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 기생은 예로부터 말 달리는 재주가 있었으며 말을 다루는 기술까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이 만들어낸 결과로 제주의 기생은 이 같은 재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제주의 일반 부녀자들도 승마를 잘했었으며 관기들은 매년 경마대회도 가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은 제주는 원 간섭기부터 목장으로 운영되었고 뛰어난 양마기술로 많은 말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지형적 환경을 이유로 제주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말을 탔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또한 제주라는 지역이 지닌 환경이 독특한 문화상을 만든 것이다.⁴⁶⁾

여기서 제주신화와의 여성성을 연결하여 볼 수 있다. 가문장아기, 자청비, 구슬할망 등 제주신화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그 주인공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에 탐라신화에는 지혜롭고 강인한 여성주

43) 『(역주)제주고기문집』, 석북집, 224쪽 “城上觀妓走馬 / 男裝走馬濟州娘 / 燕趙風流滿教坊 / 一舉金鞭滄海上 / 三回春草石城傍 / 爭看橘柚家家巷 / 獨步驪驄處處場 / 教着蛾眉北方去 / 千金草嫁羽林郎.”

44) 『(역주)제주고기문집』, 석북집, 225쪽 “地深明月浦 / 春暗綠藤城 / 官妓能調馬 / 船人不畏鯨 / 文章風土記 / 花鳥月朝評 / 知海防榮將 / 時來慰客情.”

45) 조선 영조 때 대시인(大詩人)으로 제주에서 45일동안 머무르면서 100여 수의 시를 지어 탐라에 전해지던 신화전설과 언어 풍속을 상세히 기록하여 내륙과 매우 다른 고장이었음을 알린 인물이다.

46) 강경호, 「제주의 교방문화와 기생활동에 대한 문헌검토·제주 교방·기생 문화의 문화원형 탐색을 위하여」,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80쪽.

인공들이 수도 없이 등장한다.⁴⁷⁾ 그 예로 가문장 아기 신화에서는 집에서 쫓겨나 여러 상황을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모를 구하는 강인한 여성을 표현했다. 자청비 신화에서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택한 남성에게 구애하는 끈박한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청비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양면을 모두 보여준다. 시대와 환경의 고난을 극복하는 여성의 강인하고 적극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웅적인 모습까지 볼 수 있다. 남장을 하는 모습, 꽃감관의 사위가 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은 남성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이에 반해 문도령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에서는 여성성을 느낄 수 있다.⁴⁸⁾

시대적 금기를 어기고 현실과 사후세계를 넘나들며 남자들이 해결하기에도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에서 제주여성의 상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신화의 내용 속에서 제주에서 여성은 일반적인 여성의 모습과는 무척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제주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현실에 반영되어 말 타는 기생으로 재탄생되었을 것이다. 즉, 신화 속 제주의 여성은 말을 타는 제주여성의 원형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말을 타고 나가고 싶은 자유에 대한 열망의 표현으로도 보인다.

2) 제주馬의 역사

제주에 언제부터 말이 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탐라시대에 해당하는 곽지리 패총과 구좌읍 김녕 퀘내기 동굴 유적 등에서 말의 이빨과 말뼈가 확인되고 있다. 이로써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전부터 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⁴⁹⁾ 예로부터 제주에는 天駟房星이 비치는 땅이라 말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제주의 말은 가축으로 사육되기 시작하면서 조공과 무역에 활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⁵⁰⁾

고려시대 목마장의 본격적 형태를 시작한 시기는 원의 탐라목장 설치 이후이다. 1276년(충렬왕 2)부터 원나라로부터 몽골馬 160필과 목축기술이 뛰어난 전문가인 목호들이 제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산평 일대에 말을 풀어놓고 기르기 시작하였으며 그 다음 해에 고산리로 목마장을 확대한 것이 제주목장의 기원이라 할 수 있

47) 전영준, 「탐라신화에 보이는 여성성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501쪽.

48) 김진철, 「신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 제주신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68쪽.

49)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말테우리』, 국립제주박물관, 2015, 10쪽.

50) 장덕지, 앞의 책, 2007, 3쪽.

다. 충렬왕 3년부터는 말뿐만 아니라 소, 낙타, 나귀 양 등 다섯 종류의 가축도 보내 기르게 하였으며 다루가치(達魯花赤)라는 말관리 전문가가 파견되어 오는 모습도 볼 수 있다.⁵¹⁾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이 塔刺赤을 보내 탐라 다루가치(達魯花赤)로 삼고 말 160필을 가져와 기르게 하였다.⁵²⁾ 고려 충렬왕 3년(정묘, 1277)에 원나라가 제주도에 동서아막을 설치하여 소·말·낙타·나귀·양을 방목하고 달로화적을 보내 이를 감독하게 하였다.⁵³⁾ 원이 郎哥歹을 파견하여 보낸 말 150필을 수내에 방목케 하고 또한 鄉馬를 가려 뽑아 바치게 하였다.⁵⁴⁾

위 사료에서 원이 보냈던 말과 말 관련 기술자들에 의해 제주 목장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원은 제주도의 해안지대에 위치한 초지대를 활용해 목장운동을 시작했다.⁵⁵⁾ 원나라의 14개 목장 중의 하나로 제주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목장운동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탐라 목장 설치 이후 10여 년 간 말이 잘 번식되자, 몽골은 제주 말 사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1300년(충렬왕 26)년 무렵에는 우마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육시설과 운영인원의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탐라는 이미 몽골의 14개 국립목장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⁵⁶⁾ 원은 몽골인 목축기술전문가인 목인(牧人: 일명 塔刺赤, Harachi)을 계속 파견하였고 이들과 토착인을 두어 말을 관리하게 하였다.⁵⁷⁾

탐라목장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제주민과 원의 목호들은 서로의 사육방식을 절충하며 상호 영향을 끼쳤다. 당시 제주 사람들은 대략 3만여 명 정도로 여겨지는데 말도 이와 맞먹는 2~3만 필에 달할 정도였다.⁵⁸⁾ 이렇게 나타난 탐라목장의 규모 확대로 인해 몽골문화는 제주 문화 속으로 급속하게 유입되어 제주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원이 제주를 목장으로 정한 이유에는 지형적인 측면이 크다. 목장으로는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곳이 최적지인데 특히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형이 완만한

51) 강만익, 「고려말 탐라 목장의 운영과 영향」,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71쪽.

52) 『高麗史』권28 世家 忠烈王 2년 8월조. “元遣塔刺赤, 爲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四來牧.”

53) 李元鎮, 『耽羅志』, 「牧揚」

54) 『高麗史』권29 世家 忠烈王 5년 10월조. “己亥 元遣郎哥歹, 送馬百五十四, 令放水內, 又令揀鄉馬, 以進.”

55) 김동진·강만익,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와 보전·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4, 37쪽.

56)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2000, 신서원, 177쪽.

57)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2003, 168쪽.

58) 김일우,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52쪽.

경사를 이루고 식물이 풍부하게 자생하고 있어서 제주는 목축하기 좋은 조건이었다.⁵⁹⁾ 또한 원은 제주가 한반도와 중국 및 일본지역을 잇는 해상의 요충지였던 점에 주목하였다.⁶⁰⁾ 즉, 전 영토를 목장을 중심으로 지역을 나누어 운영하였던⁶¹⁾ 원에게 몽골식 제주 목마장은 세계정복사업 추진에 필요한 戰馬를 충당하려는 목적 때문에 설치한 것이다.⁶²⁾ 세부적으로는 탐라목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동·서아막을 설치하여 동아막은 동부지역의 수산평에, 서아막은 서부지역 한경면 고산리에 설치하여 관리하게 하였다.⁶³⁾ 그 후 탐라에서는 원에서 보내온 胡馬와 함께 재래종인 土馬를 잘 키워내고 良馬는 왕실의 御乘馬로 이용하였다. 이후 왕실에서는 문무 관료들에게 내려주기도 하였고 또 원에도 보내었다.

고려 말 목장의 운영을 위해 탐라를 직할지로 삼았던 원 제국은 13세기말부터 100년 가까이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그들의 흔적을 제주도에 남겨놓았다. 이 영향으로 탐라목장의 독특한 환경적 요소가 형성되어 제주목축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고려 말기 제주 목마장은 元의 14개 목장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8개 목장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조선 초기 목장조직의 기초가 되어 10소장의 형태가 되었다.⁶⁴⁾

조선시대 제주 역사는 馬政史였다고 할 만큼 목장관리와 공마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제주 목마장들의 근원은 고려시대 목마장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최대 말 생산지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제주에서 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였던 것이다.

조선전기 제주목장은 관영목장의 형성과 사설목장의 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영목장의 운영모습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세종 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마장 형성과정에서는 제주도 출신 고급관리였던 上護軍 高得宗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는 세종에게 건의하여 국마장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음을 아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上護軍 고득중이 한라산 사면의 약 4배쯤 되는 면적에 목장을 축조하여 공사의 말을 가리지 않고 방목하게 하고, 또 목장 안에 살고 있는 백성 60여 호를 모두 목장 밖으로 옮기도록 하여, 그들이

59) 진축삼, 「몽원과 제주마」, 『탐라문화』 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136쪽.

60) 김일우,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4, 202쪽.

61) 남도영, 『제주도목장사』, 2003, 1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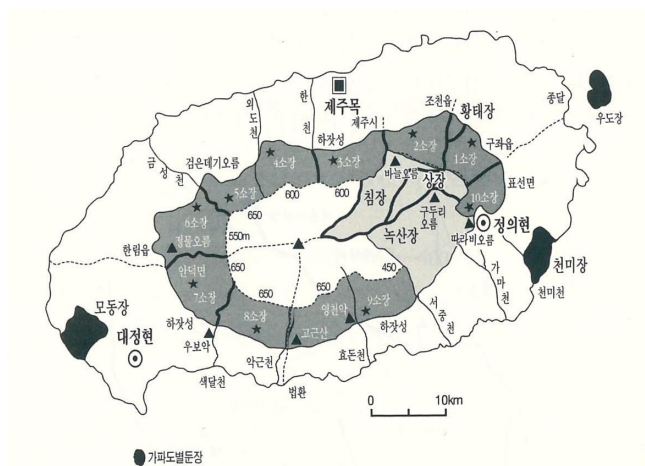
62) 남도영, 『한국마정사』, 마사박물관, 1996, 378-379쪽.

63) 장덕지, 앞의 책, 2007, 85쪽.

64) 장덕지, 앞의 책, 2007, 86쪽.

원하는 바에 따라 땅을 떼어 주십시오.⁶⁵⁾

위 사료를 통해 볼 때 고득종은 제주 백성들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목장을 국영화하고 목구를 10개로 나눌 것을 주장했던 것이며 농경지를 유지하면서 목장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것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해안 지대를 농경지로 정하고 목장지대를 중산간으로 올리게 하여 농경지와 목장 사이에 갓을 쌓게 했다. 국마목장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중산간을 빙둘러 펼쳐진 넓은 평원에 10개의 목구를 설치하여 만들었고 이를 10소장이라 불렀다.⁶⁶⁾ 10소장의 위치는 그림과 같다



[그림3] 십소장 위치⁶⁸⁾

산 지대를 국마장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정책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⁹⁾ 조선전기 제주의 중산간 지대는 사실상 조선정부가 운영하는 국마장 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목장의 여러 형태 중 산마장은 십소장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였다. 산마장은 십소장과는 달리 산마감독관에 의해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⁷⁰⁾ 산마장 형태의 개인 목장을 운영했던 제주의 대표적인 인물로 김만일을 들 수 있다. 산마장과

즉, 고득종 건의가 세종에 의해 채택되어, 십소장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한라산지에 국마장이 설치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잣성 축조라는 대토목 공사가 제주 역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⁶⁷⁾ 조선시대 목장의 여러 원형적 모습 중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잣성은 중요하고 독특한 제주의 경관이다.

잣성은 농경지 개간을 금하여 중산

65) 『세종실록』권45, 세종 11년 8월 26일 경자. "上護軍高得宗等上言: '請於 漢拏山邊四面約四息之地, 築牧場, 不分公私馬, 入放場內, 居民六十餘戶, 悉移於場外之地, 從願折給.'"

66) 권무일, 『현마공신 김만일과 말이야기』, 평민사, 2012, 17쪽.

67)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牆垣)연구」, 『탐라문화』 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215쪽.

68) 김동진·강만익,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경인문화사, 2015, 78쪽.

69)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6쪽.

70) 강만익, 앞의 논문, 2009, 210쪽.

관련된 사료 곳곳에서 김만일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사복사에서 보고하기를, “제주의 品官 김만일은 말 기르는 사업이 매우 번창하여 國屯의 3~4배 이상입니다. 말을 번식시키는 곳이 모두 국가의 토지이고 전에 진상한 공로로 높은 관직을 제주 받았으니 국가의 은혜 또한 크다 하겠습니까.”⁷¹⁾

전교에 이르기를, “제주의 김만일이 개인적으로 말을 기르고 있는데 무려 1만여 필이나 된다고 한다. 수천 필을 골라 전마로 쓰고, 김만일에게는 넉넉히 상을 주도록 하는 일을 該曹로 하여금 의논해서 조처케 하라.”⁷²⁾

전교에 이르기를, “제주 김만일의 私屯馬를 모조리 거둬들여 점검하면 1천 1백여 필인데, 한꺼번에 나오면 뒷날 급한 용도가 있을 경우 매우 염려가 된다. 그러니 단지 1~2백 필만 숫말로 점검해서 보내고, 그 나머지는 남겨 기르도록 하라. 암말에 있어서는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내보내지 말 것을 각별히 신칙해서 하유하라.”⁷³⁾

전교에 이르기를 “김만일이 말 5백필을 바쳐왔으니 超資하여 실직을 제수하고, 그의 아들 大鳴은 수령을 제수할 것이며, 둘째 아들 大聲은 당상에 오르게 하고, 그의 손자 金礪는 본도의 邊將에 제수하도록 승전을 받들라.”⁷⁴⁾

비국이 아뢰기를 “전일에 김만일의 말 1천필을 가져다 쓰는 것은 너무 많은 듯하다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김만일의 말이 무려 1만 여필이나 되는데, 이 말들이 국내에서 자라 땅에서 나는 풀을 먹으며 한라산 주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목축이 만 마리에 이른 것은 모두 국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분의 9를 가져다 사용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만에서 천을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천 필을 가져다 쓰는 것은 불가함이 없을 듯 한데 성교가 이러하시니 본주로 하여금 우선 건장한 말 6백~7백 필을 골라 올려 보내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4백~5백 필 한도에서 가져다 쓰도록 하라.” 하였다.⁷⁵⁾

위의 사료들에서 김만일의 말을 키우는 사업이 매우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필요한 전마 역시 그를 통해 나라에 바쳐지고 있으며 그에게 내려진 2품직을 보더라도 국가가 김만일에게 얼마나 의존했는지 알 수 있다.

71) 『광해군일기』권50, 광해군 4년 2월 8일 계유. “濟州 品官 金萬鎰 畜馬甚繁, 不止數千餘頭, 比諸國屯不啻三四倍. 放牧生息, 無非國家之土地, 前以進上之功, 至授腰金之秩, 國恩亦已極矣.”

72) 『광해군일기』권129, 광해군 10년 6월 20일 정축. 傳曰 “濟州 金萬鎰私養馬, 多至萬餘匹云. 數千匹提出, 用於戰馬, 而 萬鎰優賞 事, 令該曹議處.”

73) 『광해군일기』권133, 광해군 10년 10월 13일 무진. 傳曰: “則濟州 金萬鎰私屯馬, 盡爲搜括, 點出一千一百餘匹, 一時驅出, 則後日不時之用, 極爲可慮. 只一二百匹, 以雄馬點出以送, 其餘竝姑留養. 至於雌馬, 則雖一匹, 勿爲出送, 各別申飭下諭.”

74) 『광해군일기』권156, 광해군 12년 9월 4일 무인. 傳曰: “金萬鎰獻馬五百匹, 超資實職除授, 其子 大鳴守令除授, 次子 大聲升堂上, 其孫 金礪本道邊將除授 (事, 捧承傳).”

75)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7월 2일 병인. 備局啓曰: “前日以金萬鎰馬千匹取用, 果似太多, 爲教. 萬鎰之馬, 多至萬匹, 居國之地, 食土之毛, 環 漢拏一山, 殆將半焉, 則牧畜之滿萬, 無非國家之賜也. 雖十用其九, 未爲不可. 況萬取千乎? 取用千匹, 似無不可, 而聖教如此, 請令本州, 姑選壯馬六七百匹上送.” 答曰 “限四五百匹取用.”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생업은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에 많이 의존하는 생활방식이었다. 그러나 밭농사 역시 지을만한 평지가 많지 않았으며, 물이 부족하여 식수를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경제생활의 원천은 대부분 목양에서 비롯되었다. 양마는 신분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주도의 지역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사설목장이 활발히 운영되었던 것이다.⁷⁶⁾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제주목장은 임진왜란 이후 그 운영이 부실해지면서 폐지 또는 축소되기 시작한다.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십소장이 서서히 폐장되기 시작하면서 목장 인근의 마을 주민들은 십소장 내로 들어가 농경지 개간과 함께 중산간 지대 촌락형성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오개혁(1894)으로 인해 공마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주도 국영목장은 방치되게 되었다.⁷⁷⁾ 1895년에는 지나친 공마와 흉년 등으로 감목관제와 공마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마의 공급이 사라졌고 1897년에는 물납 세제가 금납제로 바뀌어 공마를 돈으로 납입하면서 목장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중산간 지역의 목장 터는 주민들의 경작지로 개간되었고 점차 화전민 마을이 들어서게 되었다.⁷⁸⁾

고려시대 탐라목장부터 조선시대 십소장과 산마장의 모습으로 존재해 온 제주목장의 형태는 대한제국기 관영목장으로 이어지다가 이후 일제시기에는 마을공동목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관영목장은 조선시대 국영목장이었던 십소장이 해체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관청 소유 목장이었다. 갑오개혁 이전에 나타나기 시작한 제주지역 국영목장들의 해체양상을 보면 1800년대 중반부터 일부 목장들이 문을 닫으며 목축대신에 농경지 개간이 허용되었고 목장토가 농경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목축공간이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다.⁷⁹⁾

관영목장이 해체된 후 일제강점기에 제주도 당국이 내린 마을공동목장조합을 결성하라는 지시에 의해 마을 단위로 조직되었다. 마을단위 축산개량과 증산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며 마을별 목장조합 설치를 강요하다시피 했다.⁸⁰⁾ 일제강점기 제주목장이 마을공동조합의 형태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이 과

76) 김경옥,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탐라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 역사문화학회, 2001, 53쪽.

77) 강만익,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 한국사진지리학회, 2013, 98쪽.

78) 국립제주박물관, 앞의 책, 2015, 50쪽.

79) 강만익,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共同牧場組合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쪽.

80) 강만익, 앞의 논문, 2011, 176쪽.

정에서 제주지역에는 원나라의 탐라목장 운영기간부터 일제시기 공동목장제도가 이식되는 기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축문화들이 더해져서 제주지역에는 원, 조선, 일본 등 삼국의 목축문화들이 융합되어 이르고 있다.⁸¹⁾

광복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에 국립목장 건설을 지시하였으며 송당리를 국립목장지로 선정하여 축사와 창고, 대통령 관사 등을 준공한 바 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리 자연조건이 좋아도 인위적 노력이 부족하면 어떠한 사업도 실패하기 마련임을 언급하며 목장 실패의 원인을 이전 정부의 감독 소홀의 문제로 판단하여 삼호그룹이 국영목장을 인수하고 송당 목장이라 명명하였다. 1967년부터는 중산간 지대(마을공동목장)를 국내 최대 초지지대로 형성하고 조성하여 국내 대기업 목장과 전업 육우 목장이 개설되었는데, 이시돌 목장, 제동목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 목장들에는 외국에서 개량마와 여러 품종의 소가 도입되면서 제주馬와 제주한우는 잡종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⁸²⁾

또한 1970년대까지 화물차, 경운기 등을 비롯한 농기계의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말의 증식이나 축산정책이 미흡하여 말의 활용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대 제주 목장은 놀이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곳이 많다. 제주목장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놀이공간으로 만드는 등 문화 산업과 여가 산업적 측면에서 목마장을 접근하는 추세이다. 본격적으로 제주도에서 말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 관광산업 진흥에 의해 관광객들을 위한 승마체험과 경마를 위한 즐기기 위한 '놀이 공간'이 형성되면서부터이다.

이와 같이 제주馬 관련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마의 역사에서는 탐라목장의 형성과 확장 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양마 기술에 대한 기록이나 10소장의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원형을 접할 수 있다. 목장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등 외형적인 모습과 산마장 감독관 김만일 이야기 등으로 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원형 등을 모두 찾아 볼 수 있다.

3. 제주인의 생활에 반영된 馬문화 양상

1) 유희 문화 요소

81) 강만익,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탐라문화』 4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164쪽.

82) 장덕지, 앞의 책, 2017, 107~180쪽.

각 나라 또는 각 지방마다 전해져 오는 놀이 문화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지혜와 생활 풍습이 시대별로 다양하게 담겨져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민속놀이 중에 나무로 말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타고 노는 놀이가 있었는데, 대막대기를 가지고 맨 앞의 아이가 그것을 다리 사이에 끼운 후에 대막대기의 머리 앞부분을 잡으면 두 세명의 아이들이 그 뒤에 함께 타고서 승마흉내를 내며 놀았다고 한다.⁸³⁾ 이 놀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1654년(효종 4)에 제주목사였던 이원진의 탐라지 제주목 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2월 초하룻날 귀덕, 김녕 등지에서는 나뭇대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다. 애월에 사는 이들은 뗏목모양을 말머리처럼 만들어서 비단으로 곱게 꾸미고 躍馬戲를 하여서 신을 즐겁게 하였다. 이달에는 배타는 것을 금한다. 보름날에 끝을 맺는데 이를 영등이라 한다.⁸⁴⁾

위의 기록에 따르면 '뗏목을 말머리와 같이 만들어 비단으로 꾸민다'라고 했는데, 때배를 馬로 형상화한 것은 빠른 속력으로 경주에 승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풀이되고 있다.⁸⁵⁾ 약마희가 실제 어떤 놀이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일부는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말뛰기 놀음 또는 말뛰기 놀이라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민속놀이로 재현할 때 사람이 말로 분장하여 뛰어 노는 모습으로 연출한 일까지 있으나 이를 민속 문화로 단정하기 어렵다.⁸⁶⁾

아침에 別防城을 나서는데 旅帥가 나를 호위하도록 기병 열 명을 동원하였다. 내가 사양하여 그만두도록 했으나, 여수가 말하기를 "이곳은 왜국과 단지 물 하나를 사이에 둘 뿐이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부득이 기병을 앞세워 떠났다. 전면에 포구가 있었는데, 마치 썰물 때여서 십리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한없이 드넓었다. 기병을 좌우익으로 나누어 종횡으로 달리게 하니, 그들의 말 모는 솜씨가 매우 능숙하였다. 나는 柳廷傑과 함께 채찍을 늘어뜨리고 말을 세우곤, 구경했다. 이 때 홀연 세 필의 날랜 말이 백사장 너머로부터 질주하며 달려왔다. 그들은 모두 고라말을 타고 갓을 썼으며 붉은 가죽옷을 입고 전후로 내닫는 것이 실로 원숭이처럼 날렵했다. 처음에는 놀라고 의아해하였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 여자들이었다. 牧官이 일부러 官妓를 보내 그런 장난을 벌인 것이었다.⁸⁷⁾

83) D.otgontsetseg, 『몽·한 구비문학에서 말이 지니는 의미와 상징』, 『Journal of Korea Culture』 13, 장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9, 85쪽.

84) 이원조,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24쪽.

85) 장덕지, 앞의 책, 2017, 147쪽.

86) 현용준, 『약마희』고, 『한국민속학』 12, 한국민속학회, 1980, 286쪽.

87) 『(역주)제주고기문집』, 탐라록, 57쪽 "朝發別防城 旅帥以十騎護送 余令却之 旅帥曰 此地與倭國 只隔一水 固不可無備 乃令騎先導而行 十里平沙 浩浩如局 使騎分左右翼 馳騁縱橫 御馬甚熟閑 余與柳廷傑 橫鞭立馬而觀 忽有三箇飛騎 自沙際鞭而來 皆乘馱馬 戴驄笠 着紫衣 橫鶩往來 捷若猿猱 初甚驚訝 熟視則皆女子 蓋牧官送官妓作戲也."

앞서 삼국유사의 사료에서 馬技를 군사 훈련에 이용하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제주 『탐라지』의 기록 중 11월 23의 기록에도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기병의 훈련과 여자들이 말 타고 달리는 모습의 연관성에서 제주馬의 유희를 발견할 수 있다.

2) 의례 문화 요소

제주인에게 말은 다른 지역과 달리 농사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이들은 말이 건강해야 그 해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해 마조제를 지냈다. 말은 제주인의 농업생활에도 깊은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제주에서는 말과 관련된 의례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관에서 주도한 대표적인 의례는 마조제 외에도 마제, 공마해신제 등이 있으며 민간에서는 백중제, 낙인, 귀표, 코표코시, 밭 밟는 코시, 당 의례 등이 이루어졌다.⁸⁸⁾ 이중 민간의례는 우마를 이용한 농업이나 목축생활이 활성화 될 때까지는 지속되었지만 이후 기계화가 되면서 거의 사라졌고 현재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서 일부 전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의례 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마조제는 말의 수호신이자 조상신인 천사방성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고려시대부터 국왕이 직접 제의에 참여하여 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으며 이와 함께 선목제(처음으로 사람에게 말 방목을 가르친 신), 마사제(마굿간의 신), 마보제(말을 해치는 재앙의 신) 등의 제사도 함께 올렸다. 이는 그만큼 말이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이었음을 보여준다.⁸⁹⁾ 다음의 사료에서 조선시대 마조제를 시행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리를 보내 箭串牧場에서 馬祖祭를 행하게 하였다.⁹⁰⁾

箭串牧場에 명하여 마조제를 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內廐馬가 전염병에 걸려 죽은 것이 20여 필이었는데 司僕寺에서 大典과 五禮儀에 기재된 것과 顯宗朝에 이미 시행한 사례에 의거하여 舊壇에서 제사를 마련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⁹¹⁾

箭串牧場에 놓아먹인 말이 봄부터 여름까지는 잘 자랐는데, 며칠 전부터 홀연히 병들어 죽는 말이 많았습니다. 본사의 등록을 가져다 상고해 보았더니, 혹 馬疾로 인하여 마조제를 시행한 사례

88) 좌동열, 앞의 논문, 2010, 19쪽.

89)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말테우리』, 국립제주박물관, 2015, 47쪽.

90) 『헌종실록』16권 헌종 10년 2월 23일, 병술. “丙戌/遣官行馬祖祭于箭串牧場.”

91) 『영조실록』31권 영조 8년 2월 20일, 무신. “戊申/命行馬祖祭于箭串牧場. 時, 內廐馬染疫, 致斃二十餘匹, 司僕寺請依『大典』, 『五禮儀』所載及顯宗朝已行之例, 設祭于舊壇, 上從之.”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전의 사례에 의해서 설행토록 하소서. 하니 윤택하였다.⁹²⁾

위 사료를 통해 조정의 많은 관심 속에서 마조제가 널리 시행되었으며 이는 시대적으로 말이 가지는 가치가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조제와 관련한 특이한 기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사복시 관리들이 마조제를 청탁하고 살곳이에 모여서 소를 잡고 기생을 이끌어 방자하게 잔치를 벌였으며 또 저화를 여러 섬 목자간에게 나누어 보내고 저화 1장에 소금 1섬씩을 거두어 무릇 98 섬이었는데, 그 소금을 쌀과 바꾸어 술을 빚었으며, 판사 홍거안(洪居安)은 丘史를 호관 목장에 보내어 돌풀을 베어 들여 사용하였으니 율에 의거하여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尹 송희미(宋希美)와 少尹, 張合 및 兼官 김영보(金永寶)·이원길(李原吉)·양춘무(楊春茂)·이자(李仔)·홍약(洪約)·이희목(李希牧)·김척(金陟) 등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판사 홍거안(洪居安)·少尹 양점(梁漸)들의 직첩을 환수하고 속장 60대에 처하게 하였다.⁹³⁾

위 인용문은 마조제를 빙자해 잔치를 벌였기에 사복시 관리들을 벌한다는 내용이다. 마조제의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에서도 마조단이 설치되어 마조제가 행해졌던 것을 현재 광양 마조단 터의 표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마해신제는 진상하는 말들을 실은 배가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원하며 해신에게 비는 제사이다. 이원조 목사의 공마선 출발당시 해신에게 드렸던 제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⁹⁴⁾ 제문을 통해 불안해하는 선원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격려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공마선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뜻을 알 수 있다.⁹⁵⁾ 1841년(헌종 7) 제주목사 이원조가 공마선을 출발시키면서 해신에게 띄운 제문은 다음과 같다.

제주 목사 이모모는 삼가 병마중사 심구조를 보내어 돼지 1필, 찬 12그릇, 술 1병으로, 조정에 조회하는 바닷가에 제사하면서 해신에게 고합니다. 큰 바다 넘실거리려 하늘에 닿아 벽이 없습니다. 아득한 이 탐라도도 역시 왕국의 경내에 매었습니다. 매년의 공헌하는 말고 실은 신의 직분입니다. 오! 바다에 신이 계셔 바람의 신을 지휘합니다. 못 배가 순조로이 건너 千里가 한 순간입니다. 혹 거친 적재물이 있더라도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신께서 자애롭지 않음이 아니라 관리의

92) 『정조실록』47권 정조 21년 7월 8일, 을해. "乙亥/司僕寺啓言: "箭串牧場所放馬, 自春徂夏, 善爲孳長, 自日前, 忽多病斃. 取考本司謄錄, 或因馬疾, 有設行馬祖祭之例. 請今亦依舊例設行" 允."

93) 『세종실록』6권 세종 1년 12월 3일, 무인. "司憲府啓, "司僕寺官吏等托以馬祖祭, 會于箭串, 宰牛携妓, 恣意設宴. 又分送楮貨于諸島牧子干, 每一張收鹽一石, 凡九十八石, 換米釀酒. 判事洪居安遣丘史于壺串牧場, 刈取郊草私用. 請依律科罪." 命下尹宋希美、小尹張合及兼官金永寶·李原吉·楊春茂·李仔·洪約·李希牧·金陟等于義禁府. 收判事洪居安、小尹梁漸等職牒, 贖杖六十."

94) 좌동열, 앞의 논문, 2010, 17쪽.

95) 남도영, 앞의 책, 2003, 378쪽.

정성이 모자란 것입니다. 지금이 공헌의 배가 이미 떠났다 되돌아 왔습니다. 한 척이 침몰하여 못 생명이 모두 손상했습니다. 허물은 실은 제게 있어서 조심스럽고 송구합니다. 게으름이 제 몸이 아님을 일찍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만약 드리는 정성 물리치면, 침식이 달지 않습니다. 다시 별자리를 점쳐 거둬 배들을 정비합니다. 사공들 돛대에 의지하여, 흰 파도에 시선 가득합니다. 지어미와 자식들 손을 잡고 발을 구릅니다. 잠깐 사이 닻을 올리면, 죽고 삶이 순간입니다. 감히 신의 은혜 비오니 한 자리를 준비해 주소서 바람이 남쪽에서 있어 급하지도 더디지도 않게 하소서 마치 물고기 수염 날리고 새들이 날개 퍼듯 하소서 사람들 기뻐하고 말들은 줄지 않습니다. 향 갖추어 정성 드리며 공손히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감동 있으면 반드시 응답함이 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뚜렷하신 영험의 신이여. 저의 정성을 살피주소서.⁹⁶⁾

제주에서 내륙으로 연결되는 해로 상에서 닦칠 수 있는 바람 등의 난관으로 공마수송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공마선의 안전 항해를 바라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민간에서 주로 행해졌던 의례로는 백중제가 대표적이다. 백중제는 백중날인 음력 7월 15일 목축을 행했던 장소에서 지냈던 우마증식제이다. 이는 다른 말로 테우리 코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각 마을마다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나 올리는 제물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이것은 제주 사람들이 우마의 번식을 기원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지냈던 목축의례였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공동목장에 방목하는 말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백중제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⁹⁷⁾

제주馬 의례는 제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음을 알고 사라짐을 아쉬워해야 한다. 제주馬 의례의 현대적 재구성을 통해 제주 馬문화를 전달하는 데 의미를 둔다면 앞으로의 시대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원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馬문화

제주 사람들의 말과 같이 했던 여러 가지 생활 속 원형을 탐라순력도의 여러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그림이 진상하기 위해 말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표 4> 『탐라순력도』⁹⁸⁾ 중 말과 관련된 그림⁹⁹⁾

96) 『탐라지』상, 貢馬放船時祭海神文. “濟州牧使 李○○譜遺兵馬從事沈龜組(중략).”

97) 김동전·강만익,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와 보전·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4, 265쪽.

탐라순력도 / 현재위치	내용
	<p>산장구마 1702년(숙종 28) 10월 15일 산장에서 말을 모으고 수를 확인하는 그림 산장은 山馬를 목양하는 목장'으로 중산간 이상에 설치 金萬鎰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山馬監牧官을 세습적으로 임명받으면서 비롯된 장소 산장은 숙종 대를 거치면서 針場, 上場, 鹿山場으로 개편 산장마다 원장¹⁰⁰과 사장¹⁰¹이 설치 목자와 보인 214명 말 2375필</p>
	<p>공마봉진 진상에 필요한 말을 각 목장에서 징발하여 제주목사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림 1702년(숙종 28) 6월 7일에 실시 목자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말들을 이끌고 나가 점검 공마점검은 관덕정 앞 목사가 입회한 가운데 실시 공마봉진의 책임 수행을 위해 대정현감 최동제를 差使 員¹⁰²으로 임명 어승마¹⁰³ 24필, 연례마¹⁰⁴ 8필, 차비마¹⁰⁵ 80필, 탄일 마¹⁰⁶ 20필, 동지마¹⁰⁷ 20필, 정조마¹⁰⁸ 20필, 세공마¹⁰⁹ 200필, 흥구마¹¹⁰ 32필, 노태마¹¹¹ 33필</p>

98) 『탐라순력도』는 보물 제 652-6호로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가을에 실시했던 순력의 내용과 제주도에서 다양하게 치러지는 행사를 기록한 화첩이다. 행사의 대부분의 내용이 진상과 공마를 목적으로 행해졌던 목장 관련 그림이 대부분이다.

99) <http://www.jeju.go.kr/mokkwana/tamla/history.htm>

100) 우마를 모아놓기 위해 만든 원형의 목책

101) 모아놓은 우마를 한 마리씩 통과할 수 있게 만든 좁은 목책 통로로 모아놓은 우마가 사장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면서 나라에 봉진할 우마 간택하기도 하였고 우마의 질병, 증감의 숫자 파악하여 전체적인 우마의 수효를 헤아리는 데 사용하였다. 즉 진상 혹은 다른 목장으로 우마를 보내기 위해 하나씩 붙들 수 있게 된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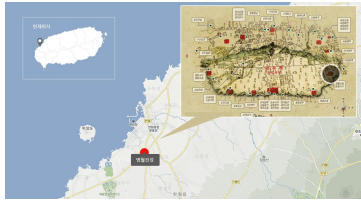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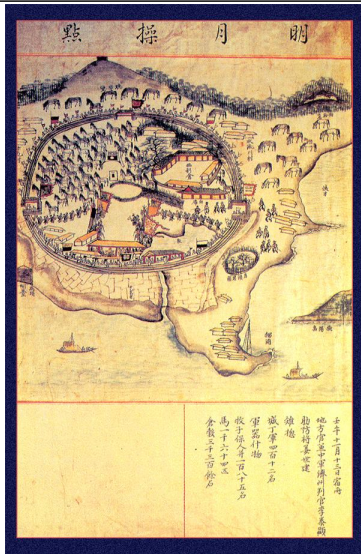
조천조점

1702년(숙종 28) 10월 20일 조천진 성정군의 군사훈련과 제2소 목장 屯馬¹¹² 점점 그림
 조천진의 위치와 진 안의 연북정 등의 건물배치 및 민가의 위치가 자세히 표현
 조천진은 서산봉수와 조천, 왜포, 함덕 연대 관할
 성문의 동쪽은 연북정을 오르내리는 계단을 두고 높은 석축을 쌓았으며 석축 위에는 연북정과 부속건물이 있다.
 그림 윗부분에 말을 점검하기 위한 원장과 사장 표현
 목자와 보인 87명, 마필 수 505필



별방조점

1702년(숙종 28) 10월 30일에 별방성에서의 군사훈련 모습
 성정군, 군기, 우마를 점검하는 그림
 별방진, 황자장, 지미봉수, 민가, 연대의 위치 상세 수록
 별방진은 타원형의 성으로 동문, 서문, 남문이 있다.
 성문은 정면 1간의 루가 있는 우진각 초가이고 문은 2짝 여단이며 문에는 방어를 위한 철엽 부착
 성문 앞에는 옹성과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 축조
 성벽 위에는 여장¹¹³이 설치
 다른 진성에 비해 성의 규모가 크고 성문이 3개소인 것으로 보아 동쪽 끝 방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남문을 들어서면 북성 가까이 호수를 두어 객사
 목자와 보인 187명, 마필 수 946필



명월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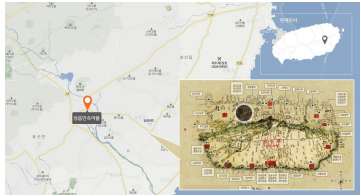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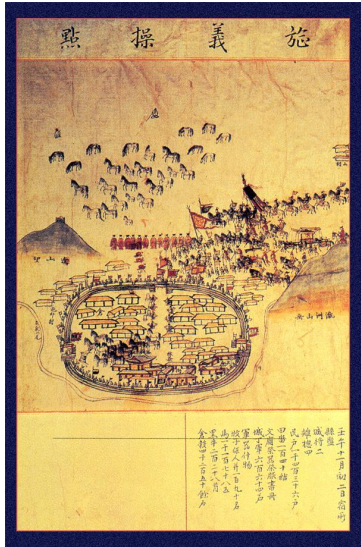
1702년(숙종 28) 11월 14일 명월진 성정군의 훈현모습과 말을 점검하는 그림

명월진은 동·서·남문이 있는 타원형의 성
성문은 정면 1간의 루가 있는 기와지붕
성문 앞에는 웅성이 있고, 성문 옆에는 회곽도로 오르기 위한 돌계단

성벽 위에는 여장이 설치

남문을 들어서면 북성 가까이 오른쪽에 호수를 둔 객사
왼쪽에는 사랑방 또는 진졸청으로 보이는 건물 위치
오른쪽 뒤 배령굴, 바다에는 비양도 한쪽 끝이 그려짐
명월진 내 말을 점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원장과 사장을 설치한 모습

목자와 보인 185명, 마필 수 1,064필



정의조점

1702년(숙종 28) 11월 2일 정의현성에서 操鍊과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그림

정의현성, 달산봉수의 위치와 읍외촌, 궁산촌의 위치 표시

정의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지고 동문, 서문, 남문이 세워져 있으며 그 중심지에 객사 위치

마당 북쪽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은 객사

남쪽으로 교육시설인 문묘(향교)

군사들의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

목자와 보인 190명, 마필 수 1,178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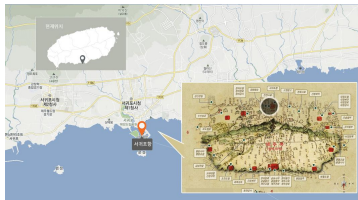
102) 조선시대 각종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임시로 차출, 임명되는 관원

103) 임금이 타는 말

104) 조선시대 제주 목장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납하던 말

105) 조선시대 제주 목장에서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 마련했던 말

106) 조선시대 제주 목장에서 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바치던 말



서귀조점

1702년(숙종 28) 11월 5일 서귀진의 조련과 군기 및 말을 점검하는 그림

서귀진의 위치와 주변 섬의 위치가 자세히 표현
 서귀진은 동문과 서문이 있는 타원형의 성
 성벽 위에는 여장이 설치되어 있고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이 성문옆에 축조
 성문 앞에는 옹성이 있고, 성문은 1간의 루가 있는 우진 각 초가
 성 안의 북성 가까이에 객사 위치
 정의현감과 더불어 대정현감이 함께 참석
 목자와 보인 39명, 마필 수 237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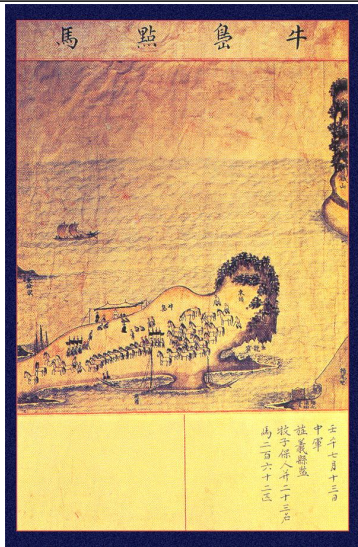


대정조점

1702년(숙종 28) 11월 10일 대정현성의 성정군 조련과 대정현의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그림

대정현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
 대정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진 타원형의 성
 성벽 위에는 여장이 설치되어 있고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이 성문 옆에 축조
 북성 가까이 正廳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고 초하루 보름마다 向闕望拜하는 곳인 객사 위치
 남문에 들어서면 넓은 마당 한 가운데 두 기둥을 세우고 지붕없이 홍살을 세워 댄 홍살문
 목자와 보인 123명, 마필 수 849필

- 107)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함께 바치는 말
- 108) 정월 초하룻날을 맞이하여 바치는 말
- 109) 연말에 각 목장에서 바치는 말
- 110) 흉년이 있을 때에 노역하는 말
- 111) 짐 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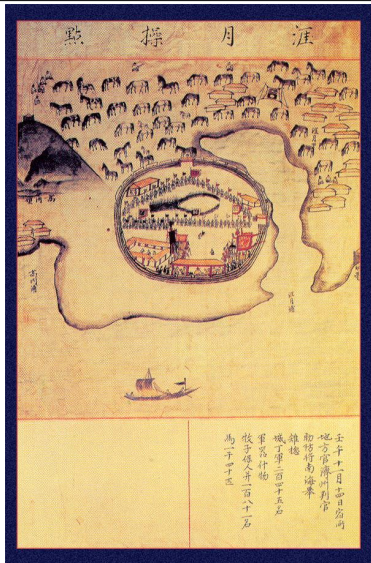


우도조점

1702년(숙종 28) 7월 13일 우도 목장 내에 있는 말을 점검하는 그림.

하단의 말은 262필이며 이들 말을 관리하는 목자, 보인의 수가 23명으로 기록

牛島는 '쇄섬'의 한자 차용 표기
제주에서는 소를 '쇄'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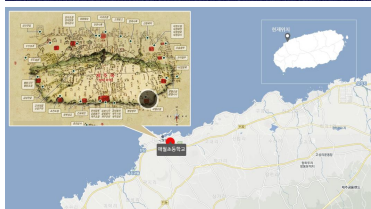
애월조점

1702년(숙종 28) 11월 14일
성문이 서로 이웃하고 있는 모습
남문은 주변의 취락과 연결

북성 가까이 남문을 향한 객사

애월진 내 말을 점검하기 위한 원장과 사장 설치

목자와 보인 181명, 마필 수 1,040필



탐라순력도는 1702년 (숙종 28) 제주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담은 화첩이다. 당시

112) 둔전과 둔답을 경작하는 데 부리는 말

113) 성 위에 낮은 담으로 충구와 타구가 있는 구조물

제주 목사였던 이형상은 제주 전 지역을 순회하며 관찰한 모습을 화가 김남길에게 그리게 하였다. 이 화첩에는 특히 많은 수의 말들이 등장한다. 탐라순력도의 여러 그림 중 조점은 군사점검, 군마점검을 하면서 제주의 방어체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사와 군마를 점검하는 각 장면마다 그 지역의 지형과 특징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당시 제주의 방어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제주의 방어체제가 발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6세기 왜구의 잦은 침입 때문이었음을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倭의 배 1척이 旌義縣 천미포에 정박하여 포구에 사는 백성을 살해하였다. 제주 목사 김충렬과 현감 김인이 倭와 항전하였으나, 倭들은 마침내 모두 상륙하여 험한 곳을 점거, 무려 수백 명이 이틀 동안 버티었다.¹¹⁴⁾

6월 27일, 무려 1천여 인의 왜적이 물으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신이 날랜 군사 70인을 뽑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돌격하여 30步의 거리까지 들어갔습니다. 화살에 맞은 왜인이 매우 많았는데도 退兵하지 않으므로 정로위(定虜衛) 김직손(金直孫), 갑사(甲士) 김성조(金成祖)·이희준(李希俊), 보인문시봉(文時鳳) 등 4인이 말을 달려 돌격하자 적군은 드디어 무너져 흩어졌습니다.¹¹⁵⁾

제주 목사 김수문에게 下書하였다. "왜적이 변경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멀리 떨어진 섬에 병력이 약하고 援兵도 때맞추어 이르지 못하므로 어떻게 防禦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심히 걱정되어 잠자리조차 편치 못해 여러 날 되었다. 그런데 지금 경의 馳啓 내용을 보고 지난달 27일의 勝戰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니 나의 근심이 크게 감하여졌다. 평소 경의 忠義와 목숨을 나라에 바쳐 복채를 쥐고 죽으려는 정신이 아니었다면 적은 숫자로 많은 수를 공격하여 이와 같은 큰 승첩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 김직손 등 4인이 돌격한 공로도 역시 작은 것이 아니나, 이는 경이 몸소 사졸에 앞서 칼날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그들의 용맹을 고무시킨 소치가 아니겠는가. 내가 매우 아름답고 기쁘게 여긴다.¹¹⁶⁾

위 사료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후 왜구의 잦은 침략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으며 나라의 큰 걱정거리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제주에는 일찍부터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3성을 중심으로 방어체제를

114) 『명종실록』권13, 명종 7년 5월 30일 신해. "賊倭一船，泊于 旌義縣 川尾浦，殺浦口居民，濟州牧使 金忠烈與縣監 金仁拒戰，賊倭遂盡下陸，負固據險，無慮數百人相持兩。"

115) 『명종실록』권19, 명종 10년 7월 6일, 무술. "六月二十七日，倭 賊無慮千餘人，下陸結陣。臣抄率驍勇軍七十人，突入陣前，相距三十步。倭 人中箭者甚多，而尙未退兵，定虜衛 金直孫、甲士 金成祖·李希俊、保人 文時鳳四人，馳馬突擊，賊軍潰散。"

116) 『명종실록』권19, 명종 10년 7월 7일, 기해. "自聞倭賊犯境以來，深念孤島絕遠，兵力單弱，援兵亦不能以時往赴，不知何以禦之，耿耿于懷，寢不安席者，有日矣。今見卿馳啓之辭，備知前月二十七日克捷之狀，予心之憂，十減七八。非卿素服忠義，有許國死鼓之心，能以寡擊衆，致此大捷乎？金直孫等四人突擊之功，亦不爲少，然此非卿身先士卒，冒白刃馳進，以鼓其勇之所致耶？予甚嘉悅"

구축하였던 것이며 탐라순력도에서 보여주듯 군사와 군마점검이 중요한 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4) 생활사에 반영된 馬문화 요소

제주馬가 제주에 등장한 이래 농업에 활용될 뿐 아니라 군사용 공마로도 널리 이용되면서 제주인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제주시 일대에 고마로라는 지역이 있다. 고마로라는 지명은 고마장(雇馬場)이 있어 말을 징발하던 곳이었다고 해서 전해진 것이다. 이곳은 제주시 동부지역의 관문으로 말이 쉬어가는 곳이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고마로라는 현액이 걸려있을 뿐 아니라 도로를 가다보면 아래 사진과 같이 도로 블록마다 고마로라는 이름을 볼 수 있으며 말 모양의 아치 조형물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림 4] 고마로 도로 블록과 표지판

이처럼 지명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馬는 제주인의 생활 곳곳에 자리 잡아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 중산간에 형성된 초지대를 배경으로 살았던 목축민들의 삶의 방식을 반영되어 있는 이곳에서 제주의 다양한 馬 문화의 원형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제주에는 마을 공동목장에서 말을 일정기간 풀어 키우는 방목, 이 개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말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는 풍습, 진드기가 많았던 터라 산에 불을 놓았던 방애, 마소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 테우리들이 모여 제를 지냈던 백중제 등이 행해졌었다. 백중제는 테우리 ㄱ사라고도 하는데 ㄱ사는 고사 즉 제사에 해당한다. 마소를 기르는 집마다 음력 7월 14일 각자 제물을 준비하여 함께 의례를 행한다. 『탐라지』의 기록에 제주사람들은 음사를 숭상하며 산과 숲, 나무와 돌 따위를 모두

신으로 섬겨 제사를 베푼다는 내용의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 생겨난 목축문화의 하나로 보인다.¹¹⁷⁾ 이 밖에도 공마, 점마, 테우리, 잣성 등이 있다.¹¹⁸⁾

외형적인 모습의 소재로는 잣성을 들 수 있다. 제주도 목마장의 잣성은 각각 특유의 모습으로 생긴 돌들끼리 서로 맞닿아 쌓은 성이다. 돌들끼리 벌어진 간격을 채워 나가면서 만들어져 특별한 건축 기술 없이 자체적으로 그 균형을 잡은 성이다. 그러므로 이 돌 잣성은 조상들이 돌을 줍고 나르고 쌓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 제주도 목장의 생활모습을 보여 주는 중요한 유물이며 상징이다. 이것들이야말로 제주만이 가지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진정한 원형이다.

농업생활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밭 밟기와 바령, 물방애 등이 있었다. 제주는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고 건조하여 씨앗이 바람에 날려 버리기가 쉬웠다. 그래서 말들이 밭을 밟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밭 밟기이다. 이러한 농사법을 사용했음을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성이 푸석하고 들떠서, 곡식을 파종하는 자가 말과 소를 모아 그 밭을 밟게 한 후 단단해지고 나서야 씨를 뿌리니 소와 말이 피곤해 집니다.¹¹⁹⁾

바령은 농사에 필요한 거름을 만드는 것이다. 빈 밭에 우마를 몰아넣은 후 그들의 배설물을 거름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바령이라는 풍습은 척박한 제주의 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제주 사람들의 지혜로운 농업경영 방법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¹²⁰⁾

농사에 말을 사용했던 방법 중 또 하나는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했던 물방애이다. 이는 제주가 밭농사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나타난 생활상이 반영된 것이다. 조선시대 목장의 각 소장을 구성했던 字牧場에서는 각 말마다 自號를 붙여 그 소속 목장의 牛馬에 낙인을 하는 풍습도 있었다.¹²¹⁾

공사간 목장들에 품질 좋은 상마는 '父'라는 낙인을 찍어서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함은 이미 전에 입법하였다. 그러나, 사사 목장에서는 그 본 주인이 뒷생각을 하지 않고 모두 다 팔아 내보내니, 그 육지로 나갈 때에 만일 '父'라는 낙인이 찍힌 늙은 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여라.¹²²⁾

117) 이원조,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24쪽

118) 김동전·강만익,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와 보전·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4, 182쪽.

119) 『태종실록』권22, 태종 11년 7월 27일, 병술. “今觀土性虛浮, 凡播穀者必聚馬牛, 以踏其地, 地必堅硬, 然後播種, 公私牛馬, 因此困疲.”

120) 김동전·강만익, 앞의 책, 2014, 241쪽.

121) 좌동열, 앞의 논문, 2010, 21쪽.

김만일은 濟州의 부유한 백성이다. 말을 길러 만 필이나 되었으며, 이때에 이르러 말 5백여 필을 와서 바쳤다.¹²³⁾

위의 사료에서 제주의 좋은 말을 찾아 번식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낙인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준마 생산과 관련한 이야기로 조선시대 김만일의 종마를 보존했던 방법에 대한 일화가 전해져 온다. 김만일은 수령들의 착취로 준마의 맥이 단절될 지경에 다다르자 말에 일부러 상처를 내는 방법으로 종마를 보존하였다. 종마의 눈을 찌르고 귀와 가죽을 일부러 찢어 흠집을 내는 것이다.¹²⁴⁾ 제주의 말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말을 길러 부를 쌓을 수 있었으며 만 필이나 되는 많은 수의 말을 바쳤음을 사료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122) 『세종실록』61권, 세종 15년 9월 9일 무자. “公私屯品好牡馬, 以父字烙印, 不許出陸, 已曾立法。然私屯馬, 則其本主不顧後慮, 竝皆放賣, 其出陸時, 如有父字 烙印者, 還給本主.”

123) 『광해군일기』 권155, 광해군 12년 8월 15일 경신. “金萬鎰獻馬五百匹, 超資實職除授.”

124)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현마공신 김만일 평전』, (사)현마공신 김만일기념사업회, 2015, 54쪽.

Ⅲ. 제주馬 원형의 문화콘텐츠 개발

앞에서와 같이 제주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화와 역사, 제주인의 생활 속에 반영된 다양한 馬문화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제주의 馬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현재의 제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목자들에게만 한정된 문화가 아닌 제주 전 지역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곳곳하게 살아남은 이야기 신화, 당시의 馬문화를 알 수 있는 사료,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고자 시행했던 의례, 제주 사람들과 가장 친근했던 동물인 말과의 유희 등에서 제주의 馬문화는 이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서 원형을 잘 찾아 콘텐츠화 작업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제주 馬문화만이 가지는 독특한 부분을 잘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자원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환경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과 맞춰 가며 살아 내는 고유한 방식이다. 즉 사람들은 환경과 만나고 부딪치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거주’의 의미를 담는다. 문화자원은 그러한 ‘거주’의 과정 속에서 삶의 본질을 찾고 그것을 더 높은 가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¹²⁵⁾ 이것은 그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주게 된다. 더 나아가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긍지와 소속감을 심어주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한다. 문화자원은 그 지역에 남아있는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과 같이 본래 존재하던 역사의 흔적들과 그 흔적들을 활용측면에서 바라봄으로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재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자원은 전 분야를 통틀어 만들어지는 광범위한 형태로 아직 가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자원은 형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며 무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은 모든 형태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자원이 원형으로서 보존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사례의 대표

125) 조은진,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쪽.

적인 예로 캐나다 캘거리 스탬피드와 몽골의 나담 축제를 들 수 있다.

캘거리 스탬피드(Calgary Stampede)는 매년 7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열흘간 개최되는 캐나다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이다. 1912년 카우보이 대회로 출발해 로데오 대회, 취사마차인 척웨건(Chuckwagon)경주 등 서부 캐나다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대형 축제로 성장하였다. 오늘날에는 국제 오토&트럭 쇼, 바이크 쇼, 각종 콘서트 등 현대적인 행사가 결합된 볼거리가 가득한 종합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¹²⁶⁾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도 매년 7월에 몽골 최대의 민속축제이자 스포츠 축제가 열린다. 몽골의 혁명 기념일인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매년 개최되는 경기로 축제의 정식 명칭은 '남자들의 세 가지 경기'라는 뜻으로 몽골씨름, 말타기, 활쏘기 등 3가지 경기가 축제의 중심을 이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¹²⁷⁾ 몽골 전국에서 각 부족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이들 종목에 참여하여 각축을 벌이는데 나담은 여자들은 물론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몽골인 모두의 축제이다. 몽골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는 스포츠로 전 국민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제주 역시 이미 제주지역의 말 관련 축제 및 행사는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의미로 제주馬가 역사 속에서 지녀왔던 본연적인 모습을 느낄 수 없다. 이를 좀 더 보완하여 캘거리 스탬피드와 나담축제와 같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통일된 하나의 축제 콘텐츠로서 제주馬축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 전통馬목장과 제주 馬路를 콘텐츠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상징성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이다. 제주신화, 역사, 유희, 의례의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접목하여 현대인의 여가에 적용하는 실용적 연구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역사학의 개념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마패라는 기념품과 연관 지어 제주 馬路이라는 이름으로 잘 활용한다면 제주만이 가지는 훌륭한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다. 제주도 역사에서 제주馬는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존재로써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곳은 몇몇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말 관련 용품이나 탐라순력도에서 보이는 말 점검 그림 정도가 전부이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을 모르는 이가 없다

126) <http://kr-keepexploring.canada.travel>

127) <http://heritage.unesco.or.kr>

는 점에서도 제주가 말의 고장임은 자명하다. 이처럼 제주의 다양하고 풍부한 제주 牧馬의 역사문화원형을 보존하고 특색 있는 제주도 대표 얼굴로 알려야 한다. 우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문화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례 또한 단순한 재현의 형태로만 남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주馬는 제주의 역사를 알리고 제주의 전통문화를 지키는데 적합한 역사문화원형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문화콘텐츠시대로 변화하고 있어 제주역시 이런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 제주馬의 충실한 역사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馬와 관련된 신화와 역사, 유희 및 의례가 포함된 생활사의 내용을 정리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만들어 진다면 목축민들의 지혜를 배워 제주馬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향토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현황을 우선 알아볼 것이다.

1. 제주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현황

제주라는 지역에서만 가지는 馬문화 콘텐츠를 제안하기 전에 우선 제주馬의 활용 사례 및 문화콘텐츠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 馬산업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여 주목받고 있는 곳으로 렛츠런 파크가 있다. 렛츠런 파크는 현대인의 여가 시간 증대에 따른 여가공간으로서의 장소 또는 경마를 즐기는 일부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뿐 제주의 전통 馬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주 전통목마장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또 하나의 선행 예로 현재 갑마장이 있었던 가시리 마을에 제주의 600년 목축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박물관이 있다. (전)농림부가 지원하는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里立 조랑말박물관은 마을회의 노력과 수고로 승마장을 비롯하여 캠핑장, 체험장들을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마을에서 설립한 국내 최초의 전문 박물관이자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삼은 문화공간으로서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¹²⁸⁾ 하지만 현재 다른 승마시설이

128) 김창일, 「6차산업으로서의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융합에 근거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모델방향 고찰」, 제주대학

나 테마파크와 지역적으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규모가 크지 않아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주 말이 인간의 삶 속에서 내면적으로 어떤 의미로 존재하였는지 문화원형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馬가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馬문화를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馬축제이다. 현재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馬축제는 대표적으로 의귀 말축제, 렛츠런파크 제주마 馬축제, 고마로 馬문화축제 세 가지가 있다.



[그림 5] 2019년 제주馬 관련 축제 포스터

의귀 말축제는 조선시대 자신이 키우던 말을 나라에 바쳐 공을 세운 인물인 김만일을 기억하는 축제로 그의 고향인 의귀리 일대에서 펼쳐진다. 제주 의귀 말축제에는 임진왜란 때 전란으로 말이 부족해지자 자신이 갖고 있던 말을 모두 나라에 바쳐 큰 공을 세운 의귀리 출신의 김만일을 기리는 축제다. 김만일의 고향에서 펼쳐지며 말 사육을 시작한 웃귀 테마타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¹²⁹⁾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제주마 馬축제는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제주 馬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축제이다. 관상마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제주목사 김수문 장군과 기마 결사대 공연, 제주마 밭갈이 시연 등이 펼쳐진다.¹³⁰⁾ 나름 제주 馬문화의 역사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제주 고마로 마(馬)문화 축제는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현대가 공존하는

교 석사학위논문, 2014, 35쪽.
 129) 「한라일보」 2019년 10월 5일자 기사.
 130) 「제주일보」 2019년 10월 14일자 기사.

고마로를 따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오프닝 거리퍼레이드와 고마로 골든벨, 마제품 전시 및 판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로 구성되어 고마로를 말을 특성화한 거리로 육성해 나가는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축제이다.¹³¹⁾

이 외에도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들불축제와 유채꽃 축제 등에서는 과거 수말들이 종족번식을 위해 암말을 차지하는 과정에서의 몸싸움을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적 있으나 동물학대등의 논란이 일어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무조건 금지가 아닌 경기방식을 변화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민속놀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제주 농경 사회의 주요 자원이었던 말을 이용한 제주의 특색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에 착안하여 제주馬를 활용한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도 소싸움이나 스페인의 투우처럼 제주에서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제주에서 열리는 마축제에서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목장에서 말과 교감하기, 승마체험, 제주馬 사진촬영, 마상무예 시범공연, 제주馬 기념품 만들기 및 전시 말고기 요리전문점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경험 할 수 있다.

도내 박물관이나 축제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제주馬라는 원형의 기본적 활용을 넘어서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제주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즉 제주의 대표브랜드로 제주馬를 문화원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 말산업은 경마산업이라는 인식이 크다. 사행산업이라는 이미지의 경마가 제주馬의 이미지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적으로 현재 제주의 馬산업이 랫츠런 파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마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전통목마장등 역사와 연결하는 콘텐츠의 개발이나 인력 육성 등 다른 분야와의 균형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균형적인 馬산업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이다.

제주마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현황으로 승마장의 운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관광지라고 알려진 곳으로 자연을 보고 느끼며 말을 탈 수 있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운영되고 있는 승마장의 대부분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광지에서 말을 타고 짧은 거리는 이동하거나 말을 타고 사진을 찍어 기념사진으로 만들어 주는 형태, 마차를 타고 주변 관광지를 돌

131) 「헤드라인제주」 2019년 10월 9일자 기사.

러보는 프로그램 정도에 그치고 있다. 승마는 말과의 교감이 가장 중요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설명을 하고 기승한 후 안내하는 사람이 말을 끌어 주면 승마장 주변을 한바퀴 돌고 내리는 것이 전부이다. 즉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는 승마 체험이 대부분인 것이다. 다음은 제주도내 체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 현황이다.

<표 5> 제주도내 신고 승마장 현황¹³²⁾

년도	업소수	전체면적	마장면적	보험가입수	지도자 배치 수			
					계	1급	2급	3급
2014년도	35	1,118,814㎡	283,586㎡	27	30	1	1	28
2018년도	22	982,093㎡	51,080㎡	8	16		2	14

위 표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제주도내 승마장 운영은 「말산업 육성」 시행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 馬문화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승마장내 馬문화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승마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마구 등을 이용한 제주만의 상품을 개발하여 제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만듦으로써 제주지역과 결합된 역사적 목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말타기, 말돌보기, 테우리 체험 등 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체험활동 또한 제주 승마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좋은 요소가 된다. 가족단위의 캠핑형 목장으로써의 구성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제주馬를 기본 테마로 다양한 역사 체험과 문화의 이해 그리고 제주馬문화의 재탄생 공간으로서 제주 승마장을 만드는 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제주의 이야기가 결합된다면 제주馬의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2. 문화콘텐츠 수립 기반의 제주 馬路

제주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적극적

132)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등록 신고 체육 시설업 현황 2014년, 2018년」 참고.

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콘텐츠개발에 제주馬만이 가지는 역사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현재의 방문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 馬의 역사문화원형을 찾고 그것을 문화콘텐츠로써 제대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제주의 자연환경인 오름, 역사원형의 산물 잣성등의 문화자원을 원형으로 활용한 문화콘텐츠로 제주 馬路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인의 힐링을 위한 장소가 될 것이며 문화콘텐츠로서의 제주 馬路는 제주馬의 스토리텔링의 보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활용을 위한 힐링의 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에코힐링마로¹³³⁾를 조성한 바 있다. 제주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만든 올레길을 말을 타고 달리게 할 수 있게 함이 목적이었다. 제주만의 특색 있는 체험승마를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거의 방치된 상태로 그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조차도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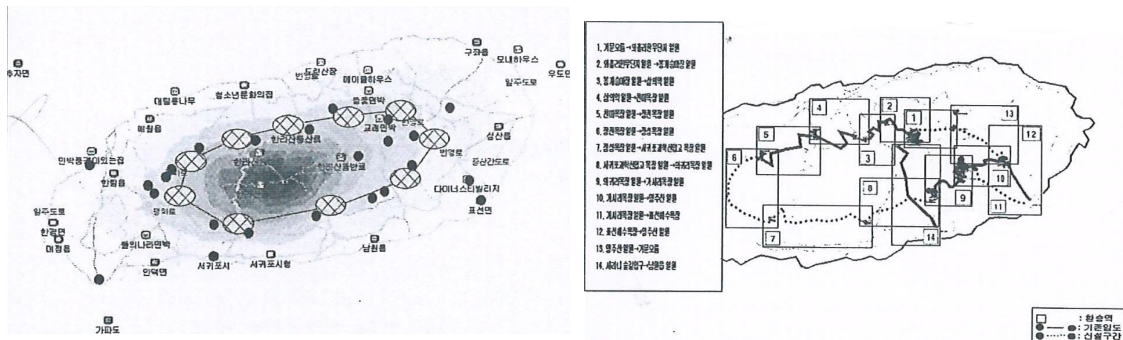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08월 29일부터 09월 18일까지 말 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말 산업특구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실태성과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 힐링 마로 조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목장, 임도 등 둘레길 들을 활용하여 조선시대 말들이 다녔던 길¹³⁴⁾을 재현하는 마로를 조성함으로써 체험승마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 및 승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말 산업 특구 중장기 진흥계획에 에코 힐링 마로 조성사업을 반영한 후 2014년 7월 31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336백만원을 투입하여 도내 10개소(연장거리 102.25Km)의 에코 힐링 마로를 조성하였다. 아래 그림¹³⁵⁾의 관광마로 예정노선도 위치를 토대로 조성한 것이다.

133) 에코힐링 마로조성사업은 제주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공익을 목적으로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승마체험코스이다. 마을회와 공동목장등을 중심으로 승마코스를 개발하고 외승프로그램으로 접목시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제주관광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송당 의귀 가시리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후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중산간 지역의 지형을 활용하여 몇 군데 추가로 지역을 선정하여 마로를 조성하였다.

중산간 지역의 공동목장과 마을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힐링 마로는 구좌읍 송당목장을 비롯하여 조천읍 와흘 한우단지, 표선면 남영목장, 표선면 가시공동목장, 남원읍 의귀공동목장, 한림읍 상명공동목장, 안덕면 서광 공동목장 등이다.

134) 잣성 : 1-10소장(세종11년부터 성종 대에 걸쳐 한라산 기슭 해발 200~400m(중산간지대)둘레를 10개로 나누어 설치됨.

13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말 산업특구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실태성과 감사결과 보고서>, 2019년



[그림 6] 관광마로 예정 위치도와 노선도

그러나 에코 힐링 마로는 실효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한데도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마을 공동목장 등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사업대상 평가회의만을 거쳐 마을공동목장 위주로 에코 힐링 마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에코 힐링 마로 조성사업의 몇 가지 예를 다음 표에서 정리하였다.

< 표 6 > 에코힐링 마로 조성사업의 예시 (단위 : Km, 천원)

마로명칭	조성위치	마로 연장	시설내용	계약일	사업기간	사업비	수탁업체
□□공동목장	제주시	9	마로, 식생매트 등	2016.06.10	2015.6.17.~10.8	190,991	□□마을 회
○○공동목장	제주시	9.37	마로, 펜스	2015.06.3	2015.6.7.~10.5	159,700	○○마을 회
ㄹㄹ공동목장	서귀포시	10	마로, 펜스	2015.06.15	2015.6.17.~12.1 7	294,310	ㄹㄹ마을 조합법인
포포공동목장	서귀포시	12.8	마로, 식생매트 등	2015.06.30	2015.7.31.~11.5	216,574	포포리마 울회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구성

사업의 결과 에코 힐링 마로 조성사업이 중산간 지역의 오염, 자연지형 또는 해변가등 자연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 또는 마을 소유 목장 위주로 조성되어 사유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코스가 단조롭게 되어 승마 이용객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일부 마로의 경우 개인 승마장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조성되어 승마장의 토지주가 에코 힐링 마로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징수¹³⁶⁾하여 사유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목장주가 유회방목¹³⁷⁾으로 가축의 목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목장구간 간

마로연결로 (출입문)을 차단하면서 마을공동목장 내에 설치된 마로가 막혀 승마 트레킹 즉, 외승이 불가하게 되면서 코스의 단조로움을 이용객이 외면하고 있다. 마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7년 6월 에코 힐링 마로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마로 운영주체가 마로 환경정비와 목장 출입문 개방 등 승마 외승에 따른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마로 운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도 이후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아 2018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마로 운영주체가 마로 운영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마로구간에 대한 사유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승마코스가 단조로워 마로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¹³⁶⁾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마을공동목장 내 조성된 에코 힐링 마로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 경관과 연계된 코스를 반영하는 등 마로 코스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로 구간에 대한 사유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승마장으로만 진입이 가능한 일부 코스를 보완 조정하는 한편 목장주 등 운영주체와 합의하여 마로구간 코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는 조치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에코 힐링 마로 사업으로 조성되어 있는 마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다시 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후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을 거쳐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마로의 재탄생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주 곳곳에 위치해 있는 외승길과 관광목장 및 승마장 등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계된 제주 馬路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패의 모양을 시각적 콘텐츠로 활용하여 각 테마 마다 지도를 구성하고 마패라는 역사원형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디자인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馬관련 시각적 콘텐츠와 馬路라는 체험형 콘텐츠를 연결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의 신화와 역사, 유희와 의례 등에서 보여 졌던 스토리 원형의 추가가 필요하다. 馬라는 역사원형과 제주 자연, 그리고 스토리를 더하는 작업을 통해 제주馬路라는 제주의 대표 콘텐츠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馬문화해설사가 동행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36) 2017. 6.13일자 한라일보 보도내용에 따르면 일부마로는 개인 승마장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유화 논란도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137) 계절의 이행(移行)에 따라 차례차례 이동해가며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 방목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풀의 채식 정도에 따라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방목방법.

138) 2019년 05월 말 산업특구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실태성과 감사결과 보고서.

과거 힐링마로 사업이 외승프로그램에만 집중하여 조성된 길이었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제주 馬路는 제주馬라는 원형을 제주 자연 속에서 학습, 여가활용, 스포츠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즉 제주가 아니면 시도되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고유 특성이 발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마패라는 역사문화원형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상징화할 수 있는 기념품의 개발과 보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미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말(馬)과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만이 가지는 독창적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만의 스토리를 포함한 창의적 제주 문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제주의 신화와 역사, 유희와 의례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기반으로 제주 馬路라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숲길, 올레길, 둘레길, 유배길 등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한 길들이 만들어져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 이러한 체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길들은 과거의 옛길들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¹³⁹⁾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에코 힐링 마로를 활용한 제주 馬路라는 콘텐츠 개발이 그 흐름을 같이 이어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우선 말과 관련된 역사문화원형을 활용한 제주馬路의 코스로 제주의 스토리를 더하여 제주馬 신화路, 제주馬 역사路, 제주馬 유희路, 제주馬 의례路로 나누어 제안하고 이 중 제주 의례路를 중심으로 구체적 제안을 해보려 한다. 기존에 만들려진 단순한 승마를 위한 길이 아니라 제주 馬문화를 듣고 보고 이해하는 길이어야 하기에 이 길을 구성함에 있어 馬문화해설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1) 제주馬 신화路

말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화 속에서 신령스러운 동물,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전달자, 위대한 탄생을 예고하는 모습 등으로 나타난다. 제주의 신화는 탐라 개벽신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랫동안 제주의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말의 신성성을 볼 수 있는 신화 이야기를 담아 제주馬 신화路는 제주송당목장 일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송당리는 제주마을 신당의 원조인 송당본향당이

139) 한정훈, 「기장지역 옛길의 역사적 변천」,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2010, 9쪽.

있는 곳이며 제주 목축문화의 보고로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 제주도 중산간을 품은 마을로써 말이 대규모로 사육되었던 그 때의 이야기를 품은 제주馬 신화路는 제주의 신화라는 스토리와 제주마라는 원형이 결합된 좋은 콘텐츠가 될 것이다.

2) 제주馬 의례路

마조제는 말의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제주에서의 말은 농사일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였다. 제주사람들은 말이 건강해야 한해의 농사를 잘 치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 년마다 마조제를 지냈던 것이다. 이러한 바램을 담아 제주에서는 축산농가의 번성을 기원하며 들불축제 기간 중 마조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주馬 의례路는 한림읍 상명목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그 시대 사람들의 말에 대해 가졌던 마음을 잘 생각하며 제주馬 의례路를 구성하고 그 이야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설프로그램을 만든다. 들불축제의 일환으로 마조제가 행해지고 있기는 하나 형식적인 재현에 사람들의 정작 알아야 할 의미는 잊은 채 들불축제를 구성하는 한 행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주馬 의례路에서 제의적 성격으로 행해졌던 곳이나 제사의 형태로 재현하는 행사를 일정 날짜를 정하여 시행한다면 그 시대상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3) 제주馬 유희路

몽골의 나담 축제는 몽골말로 유희 오락의 뜻을 가진다. 나담 축제에서는 어려서부터 말 타는 연습을 하는 그들의 역사를 보여주듯 주로 말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형성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소마노마오이(そまのまおい) 축제를 통해 야생마를 통한 군사훈련을 했던 것을 재현하여 보여주고 있다. 주변 나라들에서 말이 라는 원형을 활용한 다양한 유희의 형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제주馬문화의 독특한 유희적 원형을 찾아내고 보여주기 위하여 제주馬 유희路는 표선면 가시목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가시리 마을 주변 오름과 목장길을 연결해 만든 갑마장길과 조랑말 체험공원을 이용하여 제주 사람들이 말과 놀았던 흔적을 제주만의 특색을 더해 재구성하여 다른 나라 축제와의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4) 제주馬 역사路

제주馬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중 하나는 조선시대 김만일이다. 이는 남원읍 의귀리 출신으로 당시 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뛰어난 목축기술을 가진 대목장주였다. 임진왜란 때 중앙 정부가 말 부족에 시달리자 자신이 기르던 말 수백 필을 헌마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공적으로 그 후손들은 산마감독관이라는 산마장 최고 관리에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말을 잘 다루었던 김만일은 뛰어난 목축능력을 발휘해 많은 수의 말을 번식시켰으며 준마를 키워내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스스로 말을 바침으로써 국난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¹⁴⁰⁾ 이러한 역사적 원형을 가진 곳으로 제주馬 역사路는 남원읍 의귀목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드넓은 오름 등에서 말을 키웠을 그의 모습을 생각하며 제주 牧馬문화의 원형을 느껴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그가 말을 사육했던 방식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테우리 학교 설치도 건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형태로 제주의 다양한 스토리가 담긴 馬路의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도의 특색 있는 자원인 제주마를 활용하여 옛 제주지역 말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에서의 가치 있는 활용이 가능하다. 제주馬의 원형을 잘 보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보존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역사교육의 장소 및 말 체험을 할 수 있는 색다른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치되었던 에코힐링 마로중 1개의 구간 상명목장 주변을 제주馬 의례路로 정하고 역사원형을 적용하고 재검토 하여 건설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상명목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블랙스톤 골프장과 문돈지 오름 사이에 있으며 주변에 당오름, 정물오름등 오름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상명목장이 관리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으며 넓은 초지목장과 마로가 구성되어진 장점이 있다. 상명목장은 넓은 초원이 입지해 있는 지역이며 목장전체가 잘 정비되었다. 주변 문돈지 오름과 마로구간이 연결되어 있어 말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면적은 1,157,030㎡이다. 상명목장은 주변에 많은 오름이 있는 곳으로 이 오름들을 연결하여 馬路를 형성한

140)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헌마공신김만일평전』, (사)헌마공신 김만일기념사업회, 2015, 21쪽.

곳이다. 기존 승마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며 목장과 오름 주변 제주馬 생산 목장들이 많아 마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변지역을 잘 활용한 제주마 학습공간과 스토리텔링 구간을 추가 구성함을 제안한다. 넓은 초원이 馬路와 연결되어 있으며 오름 등 주변 자연경관을 잘 활용한다면 제주馬 역사원형 체험의 공간으로 우수한 지역이다.

첫 번째로 기존구간을 활용하여 자연을 통한 힐링의 장소로 약 10km 코스로 승마 탐방길을 재구성한다. 우선 말을 타는 구간에는 세부 구간을 나누어 말을 갈아탈 수 있는 터미널을 정한다. 각 구간을 완주하고 이동함에 있어 안전성을 보장되어야 하기에 넓은 초원 주변의 마로를 구성함에 있어 아래 현장 사진의 울타리부터 잣성의 모습으로 재구성하기를 바란다. 제주마의 외형적 문화요소인 잣성을 승마를 통하여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갖고자 하게 함이다. 또한 탐라순력도의 그림 곳곳에서 보이는 원장과 사장을 평지에 배치하여 점마가 시행되었던 시대의 목장 모습으로 만들어 낸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미래에 전달되어야 하는 역사문화 자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림 7] 상명목장 주변 힐링 마로

현재 한우 목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말 사육 목장으로 전환시켜 제주마를 활용한 의례 체험 및 스토리텔링 학습구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제주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馬문화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시켜야 한다. 마로를 안내해야하는 표지판이 아무 역할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에 제주馬의 다양한 역사를 알릴 수 있게 탈바꿈시켜야 한다. 상명마을은 행정안전부 지정 정보화 마을이다. 마을을 수식하는 이름에 맞게 제주馬 의례를 알리기 위해 마조제나 공마해신제등 말 관련 의례들을 재연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한

다. 마로 입구의 마을회관에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림 8] 에코힐링마로 입구와 안내 표지판 현재 모습

이 모든 프로그램에 조선시대 암행어사를 상징하는 마패라는 원형을 활용한다.¹⁴¹⁾ 말을 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학습하는 과정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패를 이용하여 기념품화 하는 것이다. 마패는 고려와 조선시대 관리들이 지방으로 갈 때 나라의 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 증명서이다. 중요한 신분증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마패라는 원형을 기억하고자 이를 토대로 한 기념품을 만든다. 마패 속의 말이 겹쳐져 그려졌던 모습처럼 제주 올레길을 상징하는 말 모양의 간세다리를 활용하여 겹쳐 만들고 간세다리마패라 이름 붙인다. '간세'는 제주의 상징인 조랑말을 나타내며 '간세다리'는 느릿느릿하게 걷는 게으름뱅이를 뜻하는데 느리게 여행하며 제주를 여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각 코스를 마무리할 때마다 겹쳐진 말과 말 사이에 체험 사진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제공하고 소장할 수 있게 한다.



[그림 9] 마패와 간세다리

141)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의 창출」, 『탐라문화』 60, 탐라문화연구원, 2019, 183 쪽.

<표 7> 제주馬 의례路 콘텐츠 구성안 예시

마로명칭	위치	구간	운영주체	콘텐츠 내용
제주馬 의례路	상명목장 일대	10km	상명공동목장조합	①마로 재정비 (잣성,사장,원장) ②마로 곳곳 터미널 배치(식사공간을 함께 마련하여 승마장 전경을 볼 수 있는 장소) ③馬 관련 민속의례 영상 프로그램 상영 ④馬문화해설사 교육 ⑤간세다리마패 제공 프로그램 실시

위의 표를 바탕으로 제주馬 의례路라는 이름으로 상명목장과 그 주변을 잘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풍력발전기와 馬路가 조화를 이루어 말과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 될 것이다.

제주馬路는 제주마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서 제주를 상징하는 새로운 콘텐츠로서 가능성이 크다. 첫째, 감상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 마로에 구성된 잣성으로 외형적 요소를 감상하고 체험관을 방문하여 영상콘텐츠를 통해 제주의 독특한 마조제 등의 목축문화를 관람한다. 이로써 제주 목축문화의 다양한 역사원형을 학습할 수 있다. 둘째, 활동을 통한 학습이다. 馬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승마를 체험하며 지역마다 관련 역사 이야기를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명목장에서 관측할 수 있는 항과두성이 보이는 장소를 설정하고 역사학습과 승마를 같이 체험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마패에 제주올레길의 상징인 간세다리 말의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변형시키는 재현 작업을 통한 학습이다. 감상과 체험의 과정을 마패의 변형으로 완성시킨 간세다리마패라는 기념품으로 재현하는 과정 속에서 제주 馬문화를 복습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에코 힐링 마로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존의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마로의 테마 구성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제주馬路라는 콘텐츠를 제안한 이유는 기존 건설되었던 에코 힐링 마로를 활용할 수 있어 저비용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제주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제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목장을 중심으로 馬路를 구성하고 제주마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여러 행사를 재연하는 공간을 만들어 제주마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馬路의 형성이 활성화된다면 다른 위치에 방치되어 있는 힐링 마로들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다.

관광馬路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승마산업 또한 발전하여 여가활용으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훌륭한 자연경관의 도움을 받아 제주만의 독특한 지역성을 담은 제주馬路는 제주의 상징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제주의 오름과 농촌의 길 지역의 목장자원을 잘 활용하여 제주마와 관련된 다양한 테마를 가진 제주마로가 구성된다면 제주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말을 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체험공간임은 물론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광공간으로서도 자리매김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제주馬 원형을 보여주는 역사체험학습공간으로써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3. 제주馬의 문화콘텐츠 개발 의미

문화콘텐츠 개발의 기반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이 그 원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창의력과 상상력이 더해진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는 과정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며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한 개발이 우선한다.¹⁴²⁾

제주는 예로부터 제주에서 아름다운 10곳을 지칭하는 영주십경 중 하나로 고수목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라산 초원지대의 말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노니는 모습이 절경이었던 곳이다. 이런 제주에서 말을 타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제주인에게 또는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즉 제주 馬문화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승마라는 형태로 사람과 말이 일치되어 심신 단련하기도 하였고 말과 함께 만들어 내는 여러 기예를 통해 馬術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여져왔던 馬의 역사문화원형을 활용하여 제주의 자연 속에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목장의 모습이 잘 남아있는 제주의 자연에서 제주馬路라는 콘텐츠의 개발은 자연이 잘 보존된 제주라는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이곳에서 제주마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말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감을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말의 고장으로써 제주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더불어 현대인의 스

142) 전영준, 앞의 논문, 2018, 121쪽.

트레스 해소와 일상의 힐링으로 인간의 정서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당시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과 지혜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으며 전통을 계승하여 선조들의 삶을 모습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는 순간 방심하면 시대의 흐름 속에 쉽사리 사라져 그 존재 사실 자체를 역사 책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현실이 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원형을 잘 찾아내고 그 가치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제주 馬路를 제안한 것이다. 이는 제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馬문화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자 함이며 말을 상징하는 지역으로서의 제주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함이다. 더 나아가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훌륭한 문화콘텐츠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제주 지역 사회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제주를 찾을 때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식상한 제주의 모습이 아닌 조금 더 제주스러운 독특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무엇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잘 담아내고 있으며 제주인의 정서와 잘 이어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한국의 정서를 함축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⁴³⁾ 제주를 찾는 사람들 중 승마 시설을 찾는 이들은 제주라는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馬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기를 원한다. 제주 馬路라는 콘텐츠 개발은 제주의 스토리를 입힌 역사문화콘텐츠로써 다른 지역에서의 승마프로그램과는 확실히 다른 차별성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제주 馬路는 단순한 제주의 콘텐츠가 아닌 제주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스토리텔링 장소가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주馬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제주 馬路는 역사 속의 馬원형을 활용한 장소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조선시대 십소장, 잣성, 원장, 사장 등 제주 목장의 외형적 모습을 재창조하고 확인할 수 있다. 과거를 재현한 목장 속에서 제주의 馬문화를 재해석하여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제주라는 섬에서 말을 왜 중요하게 생각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되짚어보고 말과 관련된 제주의 여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문화

143) 전영준, 앞의 논문, 2018, 121쪽.

관광해설사의 역할을 馬라는 원형에 한정하여 교육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제주 馬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제주의 상징으로써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다. 셋째, 마패라는 원형과 제주 올레길을 상징하는 간세다리 이미지를 접목시킨 제주를 나타내는 새로운 마스코트의 개발이다. 제주에서 경험한 목장체험의 여러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마패의 형태로 만들어 소장하게 되는 것이다.

IV. 결론

역사문화원형이란 역사 속에서 구성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

지역의 역사문화원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원은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민의 생활을 잘 나타내거나 지역민의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어야 한다. 지역의 역사문화원형인 자원을 문화콘텐츠로 재탄생 시키려는 노력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보편화 시킬 수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원형의 자원으로 여길 수 있는 역사, 역사적 인물, 전설이나 설화 등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특색있는 문화유산을 가치있는 문화로 만들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원형 자원을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재해석하여 만들어진 여러 요소들을 문화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지역의 문화를 상품화함으로써 지역의 인적 요소 활용과 그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주는 말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곳이다. 화산섬의 토질에서 자란 풍부한 목초자원과 맹수 없는 온난한 기후가 제주를 말의 고장으로 만들었다. 선사시대부터 말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다방면에서 말을 연구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는 변함없는 말의 고장이다.

제주馬라는 역사문화원형을 재해석하고 문화콘텐츠로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제주馬의 콘텐츠 활용방안의 사례를 살펴본 후 제주 馬路라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자연과 역사와 사람이 함께 누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며 이 새로운 공간이 제주를 대표하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제주자연과 역사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모든 분야가 산업적으로 활용되어 문화원형을 상품으로 개발하고 문화원형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굴뚝 없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산업은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화콘텐츠의 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따른 해답은 역사문화원형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찾을 수 있다. 문화콘텐츠는 현대 사회에서 생활과 문화에 관련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인데 문화와 관련된 정보는

결국 인문학, 특히 역사문화원형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⁴⁴⁾

지금 제주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의 역사문화원형은 시대를 거슬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에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그 가치가 더 큰 것이다. 역사문화원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주 문화자원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¹⁴⁵⁾ 즉, 제주의 문화원형적 특성이 현재에도 그 역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문화의 소외된 지역으로 생각되어 늘 주변에서 맴돌던 제주문화의 과거에서 벗어나 한국문화의 한 부분이며 독자적인 모습을 가진 고유성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의 자연, 신화와 역사, 유희와 의례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문화에 바탕을 둔 제주 馬路라는 콘텐츠의 개발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제주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승마와 관련한 많은 기반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사 속에 살아 남아있는 문화원형을 토대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이야말로 현대를 살고 있는 제주인과 제주를 찾는 문화 이주민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주 천 년이 품어온 역사문화원형은 제주를 알리는 상징체계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아 계속하여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¹⁴⁶⁾ 그렇기에 콘텐츠 개발 과정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 신화 속에서 보여 졌던 인간과 말의 교감, 사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말과 제주사람들의 기록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전달해야만 가치 있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주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馬문화의 보존과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역사 속에서 그 원형을 찾아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현대는 세계화 시대로 단순하게 지역문화를 보여주는 형태의 콘텐츠는 세계화시대에 살아남는 것이 힘들어졌다. 해당 지역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다양한 역사문화

144) 김동진, 앞의 논문, 2010, 32쪽.

145) 김동진, 「제주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시대와 관련하여」, 『지방사와 지방문화』 6, 역사문화학회, 2003, 319쪽.

146) 김동진, 위의 논문, 2003, 316~327쪽.

원형 발굴하고 의미와 가치를 담은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래야만 다른 지역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역량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문화 상품과 관련하여 문화콘텐츠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기반은 지역민들이 정체성을 지니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정체성이 기반이 되어야만 지역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을 만드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자기 지방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는 일이다.¹⁴⁷⁾ 즉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되살려 상징화할 수 있는 상품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¹⁴⁸⁾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콘텐츠의 개발로 제주馬路를 제안하였다. 우선 역사문화원형의 이론적 개념을 설명하고 제주馬를 원형으로 한정하여 이를 이용한 콘텐츠의 개발을 제안한 것이다. 기존의 경마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사행산업의 장소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¹⁴⁹⁾ 렛츠런 파크와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는 조랑말 체험공원을 보완한 제주馬 복합 공간을 구성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공간이 조성된다면 제주馬라는 역사문화원형에 대한 대중적 인식기반을 높일 수 있으며 단순히 말을 타는 곳이 아니라 말에 대해 배우고 말과 관련한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제주가 역사 속에서 중요한 목마장이었음을 기억하며 제주에 남아 있는 馬문화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마패라는 원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승마 탐방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제주馬의 다양한 흔적을 트레킹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주 곳곳에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마필 수 및 제주 지역 내 목장의 연계과정이라는 선행 작업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탈 말은 순치되어 있어야 하며 제주馬의 이야기를 들려줄 馬문화해설사 교육 등의 문제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먼저 해결되어야 할 조건이 많지만 제주지역 馬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지역의 인문적 자산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인적자원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더불어 제주馬를 활용한 음식문화, 마패를 반영한 시각적 콘텐츠의 개발과 연결하여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적극

147) 김동진, 앞의 논문, 2010, 33쪽.

148) 김동진, 위의 논문, 2010, 33쪽.

149) 심계진·박치완, 「제주승마장활성화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학』,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3, 92쪽.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말 산업과 직접 연계되는 렛츠런 파크나 馬문화 사업단과 같은 공적 기관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며 행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콘텐츠 개발 과정에 공공기관의 지원과 더불어 제주馬路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목장 인력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를 보고 느끼며 말과 함께 하는 제주의 길” 즉 제주 馬路라는 콘텐츠는 제주역사와 제주馬 그리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주馬라는 역사문화원형에 대한 대중적 인식기반을 높일 수 있으며 제주馬路을 통한 관광산업도 유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장소가 됨은 물론 제주를 살아낼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즉 제주 馬문화의 역사가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다시 인지하고 이를 콘텐츠화 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 산업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제주지역 브랜드 이미지의 향상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역사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반드시 새로운 공간에서의 경험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현대인들은 어떤 지역에서든 그들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내부적 만족의 욕구를 채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콘텐츠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제주는 말(馬)을 소재로 하는 원형의 모습을 많은 부분 가지고 있는 장소이며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에서 馬와 관련된 문화나 유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외형적 원형을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제주馬의 스토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종종 열리는 제주 馬축제에서 제주馬와 관련된 생활문화의 재현정도가 전부이다.

문화콘텐츠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제주馬문화만이 가지는 독특한 부분을 잘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경마와 승마, 의례의 재현이라는 한정된 형태를 뛰어넘어 말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 목마장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잣성을 통해서도 돌들이 생긴 모양대로 부딪치고 비비는 형태로 균형을 잡고 있음을 설명하고 제주의 조상들이 돌을 줍고 나르고 쌓으면서 살아온 제주사람들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馬의 역사를 품은 문화유적인 잣성을 보호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역사교육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제주 馬路에 모두 담아 콘텐츠로 만든다면 제

주 馬문화는 다른 지역의 馬문화와는 제주를 상징하는 제주의 대표얼굴이 될 것이다. 제주馬와 관련된 역사와 신화, 유희와 의례등의 생활 문화에서 원형을 찾고 문화 콘텐츠화하여 다른 지역 또는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야하며 제주馬와 함께 제주의 자연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의 공간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말의 활용이 감소하고 목장지대의 무분별한 개발로 말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을 사육했던 테우리가 감소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전통적인 목축문화의 흐름이 단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말을 우리 문화생활권 내로 확장시키고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시가 매우 미비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구성을 가진 제주馬 콘텐츠가 연구되고 시행되어지길 바란다. 그리하여 사라져가는 제주 馬문화의 유·무형유산을 잘 보존하게 되고 제주의 馬문화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史料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탐라지』

2. 단행본

권무일, 『헌마공신 김만일과 말이야기』, 평민사, 2012.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김동전·강만익,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와 보전·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4.

남도영,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박물관, 1996.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박물관, 2003.

장덕지, 『제주馬 이야기』, 제주문화, 2007.

김동전·강만익,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경인문화사, 2015.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문고, 1996.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문고, 1996.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헌마공신김만일평전』, (사)헌마공신 김만일기념사업회, 2015.

이원조,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김정·임제·이건·신광수, 『濟州 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3. 학술지 논문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牆垣)연구」, 『탐라문화』 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9.

강만익,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 23, 한국사진지리학회, 2013(a).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지역 목축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방향」,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주학회, 2013(b).

강만익,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탐라문화』 4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c).

강만익, 「고려말 탐라 목장의 운영과 영향」,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

- 구원, 2016.
- 강문종, 「제주신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가능성」, 『영주어문』 32, 영주어문학회, 2016.
- 김경옥, 「濟州牧場의 設置와 運營 - 耽羅誌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 역사문화학회, 2001.
- 김동진, 「제주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시대와 관련하여」, 『지방사와 지방문화』 6, 역사문화학회, 2003.
- 김동진, 「문화의 시대 21세기, 제주역사문화의 현재적 의미와 활용」, 『한국소성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소성가공학회, 2010.
- 심계진·박치완, 「제주승마장활성화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3.
- 오창윤·조윤설, 「제주 목축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1,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5.
- 이홍두, 「조선초기 마목장 설치 연구」,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재단, 2017.
- 이지현·허진하·정미경,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문화원형 콘텐츠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9.
- 이윤선, 「민속문화와 문화원형-무형문화재와 <문화원형사업>의 문화원형담론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 역사문화학회, 2008.
- 황동열·윤미화, 「문화원형기반 창작아카이브의 특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13, 한국무용기록학회, 2007.
-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방향」, 『탐라문화』 49, 탐라문화연구원, 2015.
- 전영준, 「탐라신화에 보이는 여성성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 전영준, 「제주탐라의 역사문화원형과 브랜드활용」, 『제2018년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탐라 연계공동학술대회』, 2018.
-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의 창출」, 『탐라문화』 60, 탐라문화연구원, 2019.
- 진축삼, 「몽원과 제주마」, 『탐라문화』 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최철영, 「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제주도 레저승마 활성화 방안」,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 한국융합학회, 2017.
- 표인주, 「민속현상에 나타난 '말(馬)의 상징성」, 『비교민속학』 9, 비교민속학회, 1992.
- 표인주, 「'말'의 민속적인 관념과 신앙적 의미」, 『한국학연구』 5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 허남춘,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연구」, 『탐라문화』 4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3.

현용준, 「躍馬戲」考, 『한국민속학』 12, 한국민속학회, 1980.

D.OTGONTSETSEG, 「蒙·韓 구비문학에서 말(馬)이 지니는 의미와 상징」, 『Journal of Korea Culture』 1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9. 71-97

장혜원·오상훈·최병길, 「제주 가시리마을의 목축문화 기반 농촌관광 창출에 관한 연구 - 융합관광의 관점에서」, 『관광학연구』 41, 한국관광학회, 2017.

강경호, 「제주의 교방문화와 기생활동에 대한 문헌검토 - 제주 교방·기생 문화의 문화원형 탐색을 위하여」,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한정훈, 「기장지역 옛길의 역사적 변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역사문화학회, 2010.

4. 학위논문

강만익, 「朝鮮時代 濟州道 官設牧場의 景觀研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강만익,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公同牧場組合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강연실,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와 문화콘텐츠 방안 - 돌문화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창일, 「6차산업으로서의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융합에 근거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모델방향 고찰」,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진철, 「신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 - 제주신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좌동열,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유정, 「말(馬)을 통한 자아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조은진,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최형국, 「朝鮮後期 騎兵의 馬上武藝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5. 도록

『제주 말테우리』, 국립제주박물관, 2015.

『한국의 馬 시공을 달리다』, 국립제주박물관, 2014.